

최종보고서

2007-01-01-00

# 태권도 역사·정신 후속연구

2007. 08



# 제 출 문

국기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태권도 역사·정신 후속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08

책임연구원 안 용 규 · 심 승 구

#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보조연구원 : 김지혁

홍은영

# - 목 차 -

|                                |           |
|--------------------------------|-----------|
| <b>태권도의 정체성과 문명사적 의의</b> ..... | <b>1</b>  |
| 1. 태권도사 정립을 위한 제언 .....        | 1         |
| 2. 한국 무술의 시원(始源)과 배경 .....     | 3         |
| 3. 태권도의 어원과 명칭 제정 .....        | 5         |
| 4. 태권도 이전의 한국 무술과 특성 .....     | 9         |
| 5. 태권도의 정체성과 문명사적 의미 .....     | 14        |
| 6. 맺음말 .....                   | 19        |
| <br>                           |           |
| <b>태권도 정신교육을 위한 연구</b> .....   | <b>23</b> |
| 1. 머리말 .....                   | 23        |
| 2. 태권도의 교육적 의미 .....           | 25        |
| 3. 태권도장의 존폐위기와 태권도 교육 .....    | 29        |
| 1)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태권도장의 위기 .....  | 29        |
| 2) 위기극복을 위한 태권도장 교육의 방향성 ..... | 30        |
| 3) 태권도장에서 정신교육의 필요성 .....      | 33        |
| 4. 태권도 정신의 근원 .....            | 36        |

|                                 |    |
|---------------------------------|----|
| 5. 태권도 동작의 심층구조와 태권도 정신 .....   | 38 |
| 1) 대타적 측면 .....                 | 38 |
| 2) 자기내적 측면 .....                | 38 |
| 6. 태권도 정신교육을 위한 구성과 그 내용 .....  | 39 |
| 1)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 나타난 정신적 특징 ..... | 41 |
| 2) 태권도 예절과 규칙에 나타난 정신적 특징 ..... | 44 |
| 3)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 나타난 정신적 특징 ..... | 50 |
| 7. 맺음말 .....                    | 55 |
| ○ 참고문헌 .....                    | 57 |

# 태권도의 정체성과 문명사적 의의

심 승 구  
(한국체육대학교)

## 1. 태권도사 정립을 위한 제언

인류의 발달사는 힘에 대한 의식이 발동함에 따라 발전해 왔다. 힘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자기의 힘을 생활 속에 유감없이 표현하려고 노력하여 진보·발달·우월 등의 지위를 얻어 온 것이다. 그 힘에 대한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술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맨손 또는 병기를 이용해 만들어진 다양한 무술들이 발달해 왔다.<sup>1)</sup>

한국의 무술 가운데 오늘날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무도요 스포츠로 발전한 것이 바로 태권도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으로 이어진 것은 태권도가 한국의 무술 내지 스포츠를 넘어 세계적인 무도스포츠로 발전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무술 가운데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채택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태권, 수박, 시박, 씨름 등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무예가 발달시켜 온 다양하고도 훌륭한 문화적 기반위에서 주변국 무술을 창의적으로 수용·발전시켜 온 태권도인의 노력과 헌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무술이자 세계스포츠인 태권도는 국제적인 성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이론적 뒷받침을 아직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가 격투스포츠로서 세계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한국인의 혼과 정신이 담긴 무술로서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는 제대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한국의 태권도가 분명한 역사적 철학적 기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sup>2)</sup>

---

1) 원래 한·중·일 동양 삼국에서는 전근대적인 武의 기술체계를 뜻하는 용어로 ‘무예’와 ‘무술’을 함께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와 일본에서 근대적인 武의 기술과 이념체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무도를 사용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武의 기술체계를 거의 무예로만 표현해 왔다. 따라서 무예는 한국의 武의 기술과 이념체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개념이다 (심승구, 「한국 무예의 역사와 특성 -도수무예를 중심으로-」 『군사』 43, 2001, 국방군사연구소). 다만,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쉬운 이해를 위해 무예와 무술을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고, 무술로 통일해 언급하고자 한다.

2) 심승구, 「한국 태권도사의 역사적 배경 -1945년 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 『제

그동안 태권도 연구가 부진한 까닭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지금까지 태권도의 역사적·철학적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sup>3)</sup> 하지만 그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국민과 태권도인은 물론이고 태권도 연구자조차 혼란을 느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sup>4)</sup>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태권도가 근대 무술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당수(가라테), 권법 등 주변국 무술 영향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연구들은 태권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보다는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추상적 논의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술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따라서 교류와 접촉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것이 무술의 본질이다. 마치 문화가 이동하고 융합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 이동하고 융합하는 가운데 민족문화의 개성을 띠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태권도는 한국 근대무술로 형성되는데 분명히 주변국의 무술 영향을 받았고, 전통무술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무술이라는 창조적 수용을 달성했으며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한국무술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하였다.

이제 태권도의 고유성과 전통성에 얽매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불식할 때가 된 것이다. 실제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한국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을 위해서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변국 무술의 도전 속에서 태권도를 올림픽종목에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명사적 의의를 밝혀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sup>5)</sup> 특히 태권도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권도 역사에 근거한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1945년 해방을 기준으로 태권도 성립

1회 세계올림픽태권도학술대회 논문집』, 2000. (세계올림픽태권도학술대회추진위원회).

3) 태권도 역사와 철학에 관련한 연구 업적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4) 이러한 연구경향은 1950년말부터 시작된 민족주의 관점과 1980년대 이후 양진방이 당수의 영향을 밝힌 이래 사실주의 관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두 입장을 종합적으로 보려는 연구가 있으나 여전히 실증성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5) 이와 관련해 필자는 최근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심승구, 「한국무예의 정체성 탐구 -고구려 무예를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제 13호, 2004.

심승구, 「태권도 공원의 정체성과 문명사적 의미」 『태권도지』 대한태권도협회, 2005. 3월호.

심승구, 「한국무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무술,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창』 국립민속박물관, 2005.

이전과 이후 역사와 특성을 조명하고 그 속에 하나로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 내지 기술체계를 천착하여 태권도의 정체성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철저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실증적 과학적 접근을 통한 태권도사의 정립이야말로 태권도의 출발점이자 태권도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무술 내지 세계 격투스포츠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은 동양 무술을 넘어 세계 무술사 내지 스포츠사의 비전과 전망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한국 무술의 시원(始源)과 배경

한국 무술의 출발은 한민족의 기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고아시아족(古Asia족)이 한반도로 이동한 이후 스키타이 청동기 문화를 가진 북방의 기마민족이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정착한다. 그 과정에서 생긴 한민족의 기질은 여러 가지 신체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무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무술 문화가 북방 유목적인 삶의 양식에서 발달시킨 말타기, 활쏘기, 수박(태권), 씨름, 달리기 등이다. 기마문화를 중심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무술 문화는 고조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거쳐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에게 면면히 계승 발전되어 오고 있다.<sup>6)</sup>

기마민족의 유목문화는 한반도와 만주일대의 국가를 세운 이후 농경을 중심으로 점차 정착문화로 전환되어 갔다. 하지만, 말을 달리며 신체를 단련시켜 온 기마민족은 정착생활에 적응하면서도 기질적으로 정적인 신체문화 보다는 동적인 신체문화를 크게 발달시켰다.

그 기질을 유지하는 바탕이 된 신체활동이 바로 다리로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유독 달리기 문화가 발달한 배경에는 한민족이 거주해 온 만주와 한반도 일대가 약 70%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다. 더구나 기마(騎馬)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귀하고 산이 많아 수레를 이용하기 어려워도보로 달리기를 익혀 온 것이다.

6) 그러한 사실은 일찍이 중국이 우리민족을 ‘동이족(東夷族)’이라 부른 사실 뿐 아니라 고구려의 맥궁, 동예의 단궁 등의 우수한 활이 중국까지 알려진 사실에서 확인된다. 실제로 고구려가 6~7세기에 걸쳐 동북아시아의 최고 강자가 될 수 있던 배경도 바로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에 분포된 기마민족의 우수한 활쏘기 문화를 모두 아울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근대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국방체제가운데 가장 중요시 한 부분이 바로 말타기와 활쏘기였던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한 유제는 근대 이후 교통수단의 발달로 기마문화는 크게 사라져 갔지만, 궁술문화는 여전히 발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남한의 경우 전국 330여개의 활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 활쏘기 문화를 간직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이와 함께 활터를 중심으로 태권과 씨름이 전국적으로 크게 발달하는가 하면 태권도가 오늘날 한국무술로 발전한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달리기의 경우도 근대 이후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기질적으로 달리기 문화가 발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잘 달린다는 사실은 예로부터 그만한 증거가 있다. 『일주서(逸周書)』의 왕회해편(王會解篇)에 ‘발인(發人)은 사슴(鹿)과 같은데, 사슴(鹿)은 사슴처럼 신주(迅走)함을 뜻한다’ 고 하였고, 그 주석에 발인(發人)은 동이(東夷-중국인이 예부터 한민족을 부르던 칭호)의 사람을 말하고 신주(迅走)는 빨리 달림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후한서(後漢書)>>(AD23~220)에 ‘고구려에서는 절할 때에는 한 다리를 꿇고 걸을 적에는 모두 달음질 친다’ 하였다. 실제로 남연(南燕) 묘용초(慕容超)때 고구려에서 ‘천리인(千里人) 10명’을 바쳤는데, 천리인(千里人)이란 하루에 1천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발달한 한국인들의 기질은 광활한 대륙에 사는 중국인들과의 기질과 다른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다. 조선후기 실학자의 한 사람인 담헌 홍대용의 <<연행잡기(燕行雜記)>>에는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확인된다. 즉 “내가 일찍이 고사(古史)에서 ‘조선의 동자(童子)들은 잘 달린다’ 는 말을 보고 내심 괴이하게 여긴 까닭은 동자(童子)들이 잘 달리는 것이 천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중국의 동자(童子)들을 보니 아무리 경쾌한 놀이를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나라의 동자(童子)처럼 뛰거나 달리는 자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sup>7)</sup> 이러한 지적은 중국 아이들의 단면적인 신체문화에 불과하지만 중국을 직접 여행하면서 비교해 본 18세기 최고 지식인의 관찰이라는 점에서 경청할 만하다.

한민족의 기질적 특성은 한국의 무술 발달에 일찍부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그 한 예로서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 가운데 수박도(手搏圖)에 나타난 무술의 모습은 두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발을 중심으로한 동적(動的)이며 직선적(直線)인 공격과 방어를 펼치는 자세가 확인된다. 이는 오늘날 태권도의 겨루기를 연상하게 하는데 충분하다. 현존하는 한국 무술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무용총 수박도는 당시 동아시아 고분벽화 문화의 교류와 영향 속에서 그려진 것이지만, 벽화의 역사(力士)들은 한국인의 동적인 기질과 무술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 허신(許愼)의 <<설문(說文)>>에 ‘동(東)은 움직인다는 뜻이다’ 하였고, <<풍속통(風俗通)>>에는 ‘동쪽 사람들은 생동하기를 좋아하는데, 만물도 땅을 저촉해서 생겨난다’ 하였으니, 저촉도 움직인다는 뜻이다. 대저 사람들이 걸음이 빠르고 또 달리를 좋아하는 것은 만물이 땅의 기운을 저촉해서 생겨나는 동쪽 지역에서 난 때문에 생동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經史編), 논사류(論事類) 2, 풍속(風俗), 동인선주변주설(東人善走辨證說), (고전간행회본 권 31)



<한국 고구려 무용총 벽화(AD4C)>



<중국 후한 하남성 타호정 벽화 (AD2~3C)>

그러한 사실은 그 보다 앞선 시기 중국의 고분벽화의 무술모습과 크게 대비된다. 현재 중국 하남성 밀현에는 후한시대에 만들어진 타호정 고분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수박도(手搏圖)에 나타난 무예의 모습은 두 사람이 서로의 발을 붙인 상황에서 손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자세로 공방을 펼치는 자세가 확인된다. 마치 오늘날의 태극권으로 겨루기를 펼치는 듯한 모습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자세와는 큰 차이가 난다.

타호정 벽화의 무술은 일찍부터 농경문화에 바탕한 정착문화를 발달시켜 온 중국인들의 기질이 무예에 반영된 단면으로 짐작된다. 동적이기 보다는 정적이고, 직선적이기 보다는 곡선적이며, 공방의 거리가 멀기 보다는 가깝고, 발기술 보다는 손기술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과 중국의 두 벽화 그림의 비교를 통해 한중무술의 성격을 밝히는 방식은 다소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마문화의 기질에 바탕을 둔 한국무술과 정착문화의 기질에 바탕을 둔 중국무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데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무술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적응한 몸의 기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병기가 발달하면서 병기의 쓰임새와 관련된 공방의 기술체계가 결합하여 진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무술의 기원은 기마민족의 기질을 바탕으로 이미 일찍부터 동적이며 직선적이며 발 중심의 신체문화로부터 출발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한국 고대사회의 무술체계는 이후 한국 무예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는 동시에 정착문화를 바탕으로 중국무술과 시원에서 구별되는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 3. 태권도의 어원과 명칭 제정

태권도의 명칭은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견의 칭호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태견의 칭호는 언제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금까지 태견 명칭의 어원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추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밝혀지고 않고 있다. 태권은 16세기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을 도우러 참전한 명나라 군사에 의해 맨손무술이 소개되면서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한국에는 이미 삼국시대 이래로 수박이라고 불리는 무술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중국 무술을 받아들이면서 종래까지 사용하던 ‘수박(手搏)’이라는 용어 대신 타권(打拳), 권투(拳鬪), 권법(拳法), 대권(大拳) 등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맨손무술을 뜻하는 ‘수박(手搏)’ 또는 ‘수박(手拍)’ 등의 당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가 굳이 타권(打拳), 권투(拳鬪), 권법(拳法), 대권(大拳) 등의 새 용어를 쓴 까닭은 명에서 도입할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는 의미 이외에도 종래의 수박과는 다른 기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진왜란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수박(手搏)은 일격필살(一擊必殺)의 군사무술(軍事武術)로의 기능이 퇴화하는 대신에 민간에서 놀이수단으로 발달해 온 지 오래되었다. 그 결과 민간무술인 수박은 실전(實戰) 무예의 특성인 손 기술 보다는 놀이를 위한 발 기술 위주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16세기 말 조선의 수박 기술체계는 존재하기는 했으나, 전쟁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창, 검, 당과, 낭선 등의 단병기(短兵器)를 사용하는 기술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새로이 손기술 중심의 중국 권법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sup>9)</sup>

그러한 명칭 가운데 타권(打拳)은 『기효신서(紀效新書)』(1566, 민본(閩本))에서 권법의 다른 표현으로 이미 사용한 용어인 반면에, 대권(大拳)은 조선의 권법서인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1610년)에서 저자 최기남(崔起男)이 권법을 묘사한 우리식 표현이었다. ‘모든 무예의 기초’가 되는 권법에 대해 ‘큰 주먹’ 또는 ‘주먹을 크게 쓰는 무예’라는 의미로 ‘대권(大拳)’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큰 대(大)’자는 클 태(太)자와 같이 사용했으므로, 당시 대권(大拳)을 태권(太拳)이라고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권법서인 『무예제보번역속집』의 권보(拳譜)가 만들어지자 서울의 5군영(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충용청, 수어청 및 용호영 등)의 군사들을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권법·타권·대권·태권 등의 명칭이 자연스럽게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외에도 백타(白打), 권척(拳踢), 변(卞), 권박(拳搏)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선조실록』 이후 각종 관찬(官撰) 및 사찬(私撰) 자료에서는 권법(拳法)만이 확인될 뿐, 타권·대권·태권 등의 다른 용어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17세기 이후 『기효신서』에 기록된 권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불렸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8) 중국 무술이 들어올 때의 打拳, 拳鬪, 拳法, 大拳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 점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밝힌바 있다 (심승구, 『한국 무예의 역사와 특성』 군사 41집, 2001. 264~269쪽 참조).

9) 심승구, 위의 글, 261~262쪽 참조.

하지만, 민간에서는 군영에서 연마하는 권법이라는 명칭보다는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하던 수박의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진왜란 이후 권법이 도입되면서 수박 또한 자연스럽게 타권, 대권, 태권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권법의 평가방식이 처음에는 승부를 가림없이 자세를 갖추고 진퇴(進退)를 잘하는지 여부를 보고 성적을 내는 방식이 효종대 이후 손으로 상대를 타격하여 승부를 가리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타권(打拳)’, ‘대권(大拳)’, ‘태권(太拳)’이라는 호칭이 자주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0)</sup>

그러한 호칭이 조선후기 내내 계속 사용된 결과로 인하여 18세기말에 백과사전으로 편찬한 『재물보(才物譜)』(1798년)에는 맨손무예인 수박(手搏), 변(卞), 시박(廝撲) 등을 우리말로 ‘탁견’ 또는 ‘슈박’ 이라고 정리한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에 따라 택견, 태견, 태견, 택기연, 덕기연, 착견, 퇴견, 슈벽, 슈벽치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는 구한말을 거쳐 일제시대까지 계속되어 갔다.<sup>11)</sup>

하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권, 대권, 태권의 본래 한자 어원은 그만 잃어버리게 된 것 같다. 그러한 사실은 1920년에 편찬한 『조선어사전』에 원래 한자음은 기록하지 않은 채 ‘탁견’ 만이 명문화된 것에서 확인된다.<sup>12)</sup> 그러자 1925년 최영년의 『해동죽지』에는 ‘탁견’ 을 음차하여 한자로 ‘탁견(托肩)’ 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탁견’ 보다는 ‘택견’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1938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 의해 편찬된 『조선어사전』(문세영편)을 거쳐, 1942년에 수정 증보한 『조선어사전』에는 종래의 택견을 이두로 분류하고 태견을 명사 표준말로 최종 정리하였다.<sup>13)</sup>

당시 민간에서 태견에 대한 다양한 호칭에도 불구하고, 『조선어사전』에 태견이 표준말로 정리됨으로써 태견은 맨손무술을 한글 명칭으로 통일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또한 태견이 종래까지 전통 맨손무술을 뜻하는 용어이던 수박, 권법, 변, 시박, 슈벽, 수벽치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태견 명칭의 사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탓으로, 해방 후는 물론이고 최근까지 태견은 택견 등과 함께 계속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무술이자 맨손무술을 대표하는 태견 명칭의 표준화는 1945년 해방 후 태견의 독자적 발전 뿐 아니라 한국의 근대 무술체계를 정립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제 말기에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중국의 권법(國術), 오키나와(일본)의 가라데(당수) 등을 한국 전통무술인 태견의 기술체계와 경기원리에 근거하여

10) 上曰, 拳法手, 何以定其勝負耶? 李浣曰, 相解進退, 別無勝負, 故在先朝時, 以能打人者爲勝, 而以被打爲輸矣。上曰, 今亦依此爲之。柳赫然曰, 拳法, 乃宋之□□裕之所制作, 而其法有三十六勢也。其論曰, 隻身空拳, 可以戰九州, 且有畫本矣 (『承政院日記』 176冊, 顯宗 3年 10月 3日, 癸卯)

11) 이 외에도 태견은 지역에 따라 축적법, 날과람, 씨름, 돌단, 압단, 재비, 까기, 깔래기, 박치기, 날치기 등으로 불렸다(심승구, 앞의 글, 289쪽).

12) 『朝鮮語辭典』 택견, (1920, 朝鮮總督府).

13) 『朝鮮語辭典』 태견, (1942, 朝鮮總督府).

<한국 맨손무술의 유형과 명칭 변천>

|           | 신라~<br>남북국   | 고려시<br>대   | 조선시대       |            |        | 근대<br>(1874~1945) |            |           | 현대          |  |
|-----------|--------------|------------|------------|------------|--------|-------------------|------------|-----------|-------------|--|
|           |              | 10~14<br>C | 15~1<br>6C | 17C        | 18C    | 1920<br>년         | 1925년      | 1942<br>년 | 1955년       |  |
| 격투<br>무술  | 수박도<br>(手搏圖) | 수박<br>(手搏) | 수박<br>(手搏) | 권법<br>(拳法) | 탁견(슈백) |                   | 슈백치<br>기   |           | 수백치기        |  |
|           |              |            |            | 타권<br>(打拳) | 탁견     |                   |            |           |             |  |
|           |              |            |            | 대권<br>(大拳) | 탁견     | 택견                | 탁견<br>(托肩) | 태견        | 태권<br>(跆拳道) |  |
|           |              |            |            | 태권<br>(太拳) | 탁견     |                   |            |           |             |  |
|           |              |            |            | 시박<br>(廝撲) | 탁견(씨름) |                   |            |           |             |  |
| 비격투<br>무술 | 각저도<br>(角抵圖) | 각저<br>(角抵) | 각저<br>(角抵) | 졸교<br>(摔校) | 씨름     |                   |            |           |             |  |
|           |              |            |            | 질교<br>(迭校) | 씨름     | 씨름                | 씨름         | 씨름        | 씨름          |  |
|           |              |            |            | 환교<br>(還校) | 씨름     |                   |            |           |             |  |

재정립하는 동시에 ‘태권도’라는 근대식 명칭을 정비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된 것이다.<sup>14)</sup>

실제로 해방된 지 10년도 채 안된 1955년에 근대식 무술명칭인 ‘태권(跆拳道)’이 한국의 근대무술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sup>15)</sup> 당시 당수도, 권법, 화수도, 공수도 등의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1955년 9월에 개최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태권’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이어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출발하면서 그 명칭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식민지시대를 벗어나 주체적인 한국무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확실한 토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태권도의 명칭과 그 무술의 탄생은 한국 근대 무도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세계인을 위한 무도스포츠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14) 물론 황기가 1950년도에 편찬한 『화수도교본』(조선문화교육출판사, 1950)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식 무술을 화랑도의 花와 당수도의 手자를 빌려 ‘花手道’라는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태권에 근거해 태권도로 그 명칭이 결정된 것은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 무예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함의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5) 강원식, 이경명, 『우리 태권도의 역사』(태권도문화연구소편), 상아기획, 2002.

#### 4. 태권도 이전의 한국 무술과 특성

한국의 무술은 오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치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 첫째, 한국의 무술은 일찍부터 민간 보다는 국가 주도로 발전해 온 특성을 갖는다. 그 배경은 고려이후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1천 년간 문치주의에 입각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은 무치주의(武治主義) 이념 아래 지방의 분권적(分權的)인 무사문화(武士文化)를 1천 년간 유지해온 일본과 크게 다르고,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에서 소림사(少林寺)와 같은 사찰에서 별도의 무술을 연마하고 집안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전(家傳) 위주의 민간무술이 크게 발달했던 점과 크게 구별된다.

국가주도로 무술이 발달한 결과 한국에서는 민간 무술 대신에 국방력 내지 치안 등 국가수호와 체제안정을 위한 집단전술을 위한 군사 무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조선왕조가 대외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단병기와 함께 권법(拳法)을 도입하고 이를 군사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각종 권법서를 편찬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국가주도의 군사무술 발달이 일견 민간무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의무병제에 기초한 군역제도는 모든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였고, 이들이 군대에 나가려면 일정한 무술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군사무술이 민간무술에 크게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민간 무술은 국가의 이념이나 국방전략 및 전술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다.

둘째, 한국의 무술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무사상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한국에서 일찍부터 유교의 덕목(德目)을 표현하는 ‘육예(六藝)’에 근거하여 무(武)의 기술과 이념체계를 철저히 무예(武藝)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유교사상에서의 무(武)는 세상을 다스리는데 호전(好戰)과 호리(好利)를 경계하고 인의도덕(仁義道德)에 의해 다스릴 것을 강조하고, 무술은 가능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한국의 국방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부전이승(不戰而勝),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책으로 여겨 가능한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게 하였다.<sup>16)</sup> 그렇다고 무(武)를 결코 소홀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병(兵)이란 백년동안 쓰지 않아도 좋지만 하루도 방비(防備)를 잊을 수 없다’는 격언은 국방에 대한 대비

16)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孫子兵法』卷3, 謀攻).

를 늘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한국 사회에서의 무(武)는 병(兵)과 같이, 포악한 것을 금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데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8)</sup> 이러한 무(武)에 대한 인식은 유교적인 전쟁관 내지 군사관(軍事觀)으로서 전통시대의 동양사회, 특히 동양 삼국 중 유교사상에 가장 철저했던 한국의 무(武) 내지 무술문화를 관통하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무예 사상은 근대 이후 무치주의 사회인 일본에서 살상기술로서 무예 또는 무술을 인식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일본이 술(術)에서 도(道)로 개념을 전환한 까닭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쟁에서 평화로 나가기 위한 논리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무예사상은 ‘지과위무(止戈爲武), 즉 병기(전쟁)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武)다’ 라는 의미로서 이미 평화지향의 원리로서 무예를 인식하고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무도(武道) 개념은 이러한 힘 또는 무력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무치주의(武治主義) 사회에서의 자기 변신을 위한 논리라는 점에서 도덕적 교화(教化)로 국가를 다스리는 문치주의(文治主義) 사회에서 발달시켜온 한국의 무예 개념과의 다름 아니다.

셋째, 유교적 무(武) 사상과 함께 국가주도의 무(武) 관념은 민간에서의 독자적인 무술문화의 발전을 제한하였지만, 한국 무술이 일찍부터 민간에서 놀이로 토착화되어 발전하는 토양이 되었다. 민간 무술의 놀이화는 한국 무술이 상대를 죽이는 기술인 살법(殺法)이 아닌 죽이지 않고 힘을 겨루는 기술인 활법(活法)을 위주로 기술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손보다는 발을 중심으로한 기법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손은 발 보다 타격력은 약하지만 급소를 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을 겨루는 경기나 놀이에서는 가능한 억제되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 또한 놀이화는 실전용에서 사용하는 주먹 기술과 낮은 발기술과는 달리 주먹보다는 손바닥을 이용한 손기술(手法)을 사용하게 되었고, 낮고 최소의 발기술 대신 높고 화려한 발기술(足法)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띠게 되었다. 아울러 한번 공격으로 반드시 적을 죽이는 기술인 ‘일격필살(一擊必殺)’을 위한 긴장되고 살벌한 무술동작 대신에 굼실굼실 우쭐우쭐하는 몸의 부드러움과 탄력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체계를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몸 동작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세법(勢法) 동작과는 달리 재미를 위해 상대방을 계속 유인하는 발 동작(일명 품밟기)와 손 동작(일명 활개 짓) 라는 오늘날의 태권 동작도 바로 이러한 놀이화를 기초로 고안된 방식이었다.

민간 무술의 놀이화는 개인 간 겨루기는 물론이고 마을을 넘어 지역 간에 명예를

17) 『星湖僿說』卷7, 人事門, 兵備.

18) 荀卿曰 禁暴除害曰兵(『才物譜』卷5, 人譜 4)

놓고 행하는 겨루기 대회를 크게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6세기에 편찬된 전국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충청도와 전라도 마을민이 백중날(농사짓는 일꾼들을 쉬게 해 주는 날)인 7월 15일에 도 경계인 작지골에서 수박회를 즐겼다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조선초기에 민간 무술의 세시풍속화되어 온 전통은 조선후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전국의 씨름터나 활터 부근에서 태권으로 이어져 나갔다.

이처럼 한국의 맨손무술은 삼국이래로 민과 함께 발전해 왔다. 갈수록 병기가 발달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맨손무술은 지배층보다는 일반 백성들의 무예단련의 수단이었다. 동시에 놀이화되어간 맨손무술은 백성들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 역사상 수많은 무예들이 존재했으나 그것이 계승·발전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곧 민과의 결합 여부, 즉 토착화에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한국의 맨손무술은 일찍부터 민과 함께 일상의 삶속에서 호흡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키워나갔다. 바로 이점이 한국 맨손무술의 명맥을 유지해 온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무술은 일찍부터 무술과 놀이가 조화되면서 발달해 왔다. 원래 인간본능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자연발생적인 투기로 비롯된 맨손 무술은 창, 검, 활 등의 병기 발달에 따라 전투기술로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한 무술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개인의 힘을 판단하는 수단 내지 창·검술 등을 연마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다른 하나는 전투기술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무술이 군사(軍事) 무술에서 민간무술, 즉 민간의 놀이로 발달해 나갔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시대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나갔다. 한국 역사상 18세기는 군사무술과 민간무술이 가장 조화롭게 발전된 시기였다. 이점에서 한국 무술의 특성은 무(武)와 놀이(戲)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무술의 놀이화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한국무술이 일찍부터 전쟁기술 보다는 경기기술을 발달시키는 큰 배경이 되었다.

넷째, 한국의 맨손 무술은 이를 체계화하고 계승하려는 국가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임진왜란 때 중국의 『紀效新書』(1566)의 영향을 받은 이래로 조선(朝鮮)은 그 무술을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는 노력을 펼쳐 왔다. 그러한 사실은 조선 최초의 권법서인 선조대 『권보(拳譜)』(1604)에서 시작하여 광해군대에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1610)의 「拳譜」, 영조대 사도세자가 만든 『무기신식(武技新式)』(일명 무예신보(武藝新譜), 1759)의 「拳法」과 그의 아들 정조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1790)의 「拳法」로 이어지는 200여년의

긴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최초의 권법서인 『권보』(1604)는 『기효신서』의 「권법」이 32세였던 세법을 50세로 확대하여 정비한다. 이는 중국의 권법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군사들에 맞는 무술을 연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무엇보다도 권보의 특징은 『기효신서』에 없는 무술의 套路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sup>19)</sup> 이점은 중국의 『기효신서』에 없는 무술의 수련방식으로 조선의 권법서에서 처음 확

<조선시대 권법서의 편찬과 발달과정>

|      | 1604(선조37)                | 1610(광해군 2)                           | 1759(영조 35)                             | 1790(정조 14)                                     |
|------|---------------------------|---------------------------------------|---|---|
|      | 『拳譜』(1冊)                  | 『武藝諸譜翻譯續集』의 「拳譜」                      | 『武技新式』의 「拳法」                            | 『武藝圖譜通志』의 「拳法」                                  |
| 性格   | 조선 최초의 권법서                | 2차 권법서                                | 3차 권법서                                  | 4차 권법서  |
| 根據   | 閩本 『紀效新書』(1566)           | 「拳譜」(1604)<br>閩本 『紀效新書』<br>唐本 『賽寶全書』  | 「拳譜」(1610)<br>朝鮮本 『紀效新書』<br>『武備志』(1621) | 『武技新式』(1759)<br>朝鮮本 『紀效新書』<br>『武備志』<br>『內家拳法』 등 |
| 勢    | 50勢                       | 42勢                                   | 38勢                                     | 48勢   |
| 特徵   | ① 『紀效新書』 권법 32勢보다 18세가 많음 | ① 「권법」의 최초 투로 완성<br>② 발차기 축천세(蹙天勢) 도입 | ① 권법의 표준화<br>② 『武備志』 권법 32勢보다 6勢 많음     | ① 조선 권법의 완성<br>②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권법서                |
| 現存與否 | 無                         | 現存                                    | 無                                       | 現存  |
| 著者   | 韓嶠                        | 崔起男                                   | 思道世子                                    | 李德懋, 朴齊家, 白東秀                                   |

인되는 중요한 특징이다.<sup>20)</sup>

19) 원래 무술의 한 동작을 수(手)라 하고, 몇 개의 수(手)가 모여 착(着)이 되고, 몇 개의 착(着)이 모여 하나의 세(勢)가 되고, 여러 개의 세(勢)가 모여 하나의 투로(套路), 즉 하나의 품새 또는 형(型)이 완성된다.

20) 중국에서 무술의 틀인 투로는 1621년 정종유(程宗猷)의 『단도법선(單刀法選)』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 이전에는 매 초식(超式)마다 적을 만났을 때에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초식이었는데, 단도법선에서 최초의 무술완성된 무술의 틀인 보법선로도(步法線路圖)를 그려 수련자들이 익히게 하였다(『武術基礎理論』)

『권보』가 편찬된 지 6년 뒤에 다시 수정 보완한 두 번째 권법서는 『무예제보본역속집』(1610)의 「권보」에는 다시 중국의 『새보전서(賽寶全書)』의 「권법」을 의거하여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42세로 축소하여 정비하였다. 두 번째 「권보」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보다 발차기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늘을 향해 높이 발차기를 하는 ‘축천세(躡天勢)’라는 이 기술은 『기효신서』에는 없는 기술로서, 조선의 군사들에게 맞는 무술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것으로 짐작된다.

세 번째 권법서인 『무예신식』(1759)의 권법은 두 번째의 권법서인 「권보」로부터 149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들어졌다. 이 권법에는 종래 42세에서 오히려 38세로 그 세법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장수와 병사들이 권법 수련이 정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권법의 훈련체계를 재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당시 권법의 여러 기술체계를 하나의 훈련방식으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sup>21)</sup> 그럼에도 『무예신식』의 권법 38세는 『기효신서』 이후 중국의 권법을 집대성한 『무비지(武備志)』(1621)의 32세 보다도 그 세법 6세나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무예신식』의 권법은 표준화에 정비의 초점을 맞춘 결과로 권법의 성격이 실전에 대비하기 보다는 놀이에 가까운 성격을 띠었다.

그리하여 『무예신식』이 편찬된 지 31년 뒤 조선의 네 번째이자 최종적 권법서인 『무예도보통지』(1790)의 권법이 완성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은 무엇보다도 『무예신식』의 권법 38세보다도 10세가 더 많은 48세로 정비되었다. 10세를 더 보탠 까닭은 가장 우수한 세법을 추가함으로써, 최고의 권법체계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 정부는 그동안 조선에서 연마되고 있는 무술체계 위에 『기효신서』와 『무비지』를 비롯한 중국의 권법서를 참고하여 권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특히 조선의 권법서는 두 사람이 무술의 첫 단계인 초식(超式)에서 마지막 단계인 종식(終式)까지 38세의 세법을 글로 정리한 총보(總譜)와 그림으로 정리한 총도(總圖)를 아울러 정리하였다. 아울러 10세의 독자적인 비밀스러운 세법인 비결(秘訣)을 덧붙임으로써, 초보자로부터 고수에 이르기까지 무술을 수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법체계를 확립하였다. 결국 『무예도보통지』(1790)의 권법은 한국 맨손 무술의 완성이자 18세기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권법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 당시 왕위계승자인 사도세자는 『무예신식』(1759)의 발간을 통하여 신하들에게 맡겨져 있던 무술훈련 체계를 표준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당시 시행되던 다양한 권법체계를 다시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군사훈련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권법의 세법(勢法)도 간략화 시켰던 것이다.

이외에 한국에는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육전(六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재물보(才物譜)』, 『해동죽지(海東竹枝)』 등에서 권법을 비롯한 맨손무술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맨손무술이 끊임없이 기록된 까닭은 맨손 무술이 모든 무술의 기초라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동시에 맨손무술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바로 선조들의 기록정신과 소중한 문화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 5. 태권도의 정체성과 문명사적 의미

한국의 맨손 무술은 수천 년 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무술은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형성되면서 본격화되어 정복전쟁을 활발히 전재하였던 삼국시대에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박도, 백제의 금동향로의 수박상, 통일신라의 용강동 토용 등에 나타난 맨손무술의 모습들은 당대 사회에서 무술이 매우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안악고분(4C중엽) 수박도>



<고구려 삼실총(5C중엽) 수박도>



<고구려 통구 무용총(5C초반) 수박도>



<백제 금동향로(7C초)의 수박상>



<통일신라(7C후~8C초) 경주 토용 수박상>

특히 한국의 무술은 다양한 종류의 무술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이용한 맨손무술은 대체로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도 그 기술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였다. 이를 구분하면 크게 4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손기술보다 발기술을 위주로 하는 수박(변, 권박), 둘째, 손기술을 사용하되 씨름적 요소가 가미된 시박(졸교), 셋째 온몸을 사용하되 발기술 보다 손기술을 위주로 사용한 권법(슈벽, 수박치기), 넷째 온몸을 사용하되 철저히 씨름으로 승부를 내는 각저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가운데 원래의 태권은 수박과 시박을 결합한 형태였다. 오늘날의 태권이나 태권도는 바로 수박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이전 한국 무술의 유형><sup>22)</sup>

|   | 명칭     | 기법     | 기술의 특징        | 현대의 무술   |
|---|--------|--------|---------------|----------|
| 1 | 수박(手搏) | 족법(足法) | 발기술 위주 타격 무술  | 태권, 태권도  |
| 2 | 시박(厮撲) | 신법(身法) | 몸기술 위주 타격 무술  | 격투씨름     |
| 3 | 권법(拳法) | 수법(手法) | 손기술 위주 타격 무술  | 수박, 수벽치기 |
| 4 | 씨름(角抵) | 신법(身法) | 몸기술 위주 비타격 무술 | 씨름       |

삼국시대 이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접촉 속에서 발전해 온 한국 무술은 각 시마다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수박, 권법, 슈벽, 변, 사박, 권박, 박희, 택견, 태권, 슈벽, 수벽치기 등은 한국의 맨손무예들을 대표하는 칭호들이었다. 그 가운데 태권은 17세기 이후 한국의 맨손 무술을 대표하며 한국인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명칭이었다. 그러한 전통 속에서 해방 후에 형성된 근대 무술인 태권도는 50년이라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을 대표하는 무술 내지 스포츠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해방 후 태권도가 형성된 계기는 일제강점기(1910~1945)에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조선의 전통무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비롯하였다. 일본은 식민 통치의 합리화를 위해 조선의 문화를 가능한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문화로 폄하하였다. 아울러 태권과 같은 격투무술과 집단체육 활동은 식민지질서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그 보급과 확산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그 대신 일본의 무술인 유도과 검도 등을 근대 무술로 소개하고 학교 교육과 사회 체육기관, 그리고 무술도장을 통해 보급에 힘썼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권법(삼십육기), 서양의 권투, 인도

22) 심승구, 「한국 무예의 역사와 특성 -도수무예를 중심으로-」 『군사』 43, 2001, (국방군사연구소) 참조.



<18세기 서울의 태권과 씨름 겨루기>

계를 개발하였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한국의 전통무술 태권에 근거하여 태권도의 명칭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1955년 태권도 명칭의 제정은 식민지시대에 받아들인 무술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근대무술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 태권도의 수련체계를 전통무술이 발전시켜 온 겨루기 중심의 기술체계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당시 일본의 가라테나 중국의 권법 등은 전통적인 무술문화에 묶여 근대 스포츠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라테의 경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겨루기를 할 때 상대방의 타격부위 앞에서 멈추는 촌지(寸止) 자세를 사용함으로써 겨루기의 형식화를 불러왔다. 중국의 근대무술 역시 겨루기 보다는 무술의 예술성을 강조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공체조 위주의 무술로 발전시키는 등 겨루기 자체가 퇴화되는 분위기였다. 일격필살의 위험성이 내포된 무술의 겨루기는 동양무술의 스포츠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의 형식화를 극복하고 실전적인 겨루기를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전통무술에서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겨루기 문화를 최대한 활용하였

의 봉술, 오키나와(일본)의 가라테가 들어왔다.

일제시대에 주변국 무술의 유입은 한국에 무술도장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식 무술문화를 받아들이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1936년 이후 카라테가 한국에 소개된 후 독일 유학생이 받아들인 사실은 해방 후 태권도가 형성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초창기 태권도인들은 일본의 가라테나 중국의 권법 등을 배운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일제시대에 국내외에서 가라테와 권법 등을 배운 이들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국내로 돌아와 무술도장을 차리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무술 수련 방법과 기술체

다. 무엇보다 겨루기를 과감하게 도입하되 선수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하나로 손 기술을 지양하고 발 기술 위주로 겨루기 방식을 체계화하였다. 이는 한국 무술문화의 전통을 활용하여 무술의 스포츠화를 성공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태권도가 무술에 머물지 않고 스포츠화로 발전시킨 성과야 말로 태권도가 갖는 분명한 정체성인 것이다. 발기술 중심의 기술체계와 겨루기에 의거한 태권도의 경기화는 한국 무술의 성공을 넘어 동양무술의 스포츠화를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가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무술 가운데 산타(散打)가 경기무술로 발전하고, 일본의 가라데가 경기무술로 나가게 한 배경에는 태권도의 스포츠화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은 해방이후 태권도의 명칭은 물론이고 발기술 중심의 겨루기 무술로 발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동양의 여러 무술 가운데 한국의 태권도가 훌륭한 경기무술로 발전할 수 있던 배경은 바로 수천 년간 내려 온 민간 무술문화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의 무술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삶의 양식이자 의식이 담긴 몸짓체계를 반영한다. 그 속에는 ‘힘 기르기 내지 놀이 요소’, ‘전투기술 요소’, ‘한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고 있는 가치체계’ 등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무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자연발생적인 무술연마로부터 출발하여 전쟁기술 단계, 놀이화 단계, 스포츠화 단계라는 문명화과정을 밟아 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무술이 곧 정체성 있는 문화인 동시에 보편적인 문화로서 발달해 왔음을 잘 말해준다.

태권도는 한국 몸 문화의 완성이자 상징이다. 실제로 태권도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무술이요, 스포츠이자, 몸 기르기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전 세계 185여 개국에서 7천만명이상이 즐기고 있는 세계적인 무도스포츠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고 한국인의 몸 기르기 문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 가운데 하나로 말해지는 점은 이 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태권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가운데 하나이다. 일정한 규칙아래 위험성을 제거한 채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공방을 펼침으로써 인간 내면의 공격성을 해소하고 정신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올림픽 종목 가운데 태권도만큼 공격성을 해소하고 정신을 정화시키는 스포츠는 많지 않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스포츠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품새, 격파, 겨루기의 수련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신 단련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아완성의 가치는 태권도가 갖는 정체성의 상징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무술, 한국의 스포츠, 한국의 몸 기르기 문화인 태권도는 이제 한국은 물론 동양무술을 넘어 전 세계인의 몸 기르기 문화를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심신수련을 통해 자아완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태권도의 보급이야말로 21세기 태권도가 갖는 분명한 문명사적 의의인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무술 내지 스포츠의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20세기 세계스포츠의 흐름이 서양 스포츠의 세계화 시대였다면, 21세기 세계스포츠는 동서양 스포츠의 조화로운 공존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전과 전망을 가능케 해 준 계기가 바로 태권도다. 21세기를 여는 첫 올림픽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이 된 사실은 향후 새로운 천년에 한국의 태권도와 같은 무도스포츠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태권도 공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태권도공원의 계획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매우 뜻 깊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오천년 한국역사 속에서 동시대의 전 세계인들이 알고 즐기는 한국문화는 아직까지 태권도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태권도가 분명 한국 최고의 문화이자 동시에 세계문화라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태권도 공원은 분명 인류의 문명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공원은 지역을 넘어 국민 전체의 공간이요, 태권도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메카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sup>23)</sup>

마지막으로 한국 무술의 현대적 발전 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은 무술 가치의 편중화를 들 수 있다. 무술을 연마하되 심신수양을 통한 자아완성의 가치보다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가치만의 추구가 그것이다. 경기태권도 위주로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는 현 단계에서, 인간한계의 도전이라는 스포츠 정신과 심신수양을 통한 자아완성이라는 가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발전시키는데 이제 모두 지혜를 모아야 때다. 그것이 곧 한국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요, 한국의 무술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 6. 맺음말

---

23) 심승구, <태권도 공원의 문명사적 과제와 의미><<태권도지>> (대한태권도협회, 2005, 3).

한국의 무예는 수천 년간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 무용총의 수박도, 백제 금동향로의 수박상, 통일신라 용강동의 수박 토용 등에 나타난 무예 동작은 삼국시대에 이미 맨손무예가 크게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무용총에 보이는 민첩하고 활달하며 직선적인 공방을 펼치는 격투 자세는 추운 북방 지역의 기질과 무예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점은 고구려 무예의 독자성을 뜻하는 동시에 한국 무예의 시원이 북방 계통임을 시사한다.

한민족의 기질적 특성은 한국의 무술 발달에 일찍부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그 한 예로서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 가운데 수박도(手搏圖)에 나타난 무술의 모습은 두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발을 중심으로한 동적(動的)이며 직선적(直線)인 공격과 방어를 펼치는 자세가 확인된다. 이는 오늘날 태권도의 겨루기를 연상하게 하는데 충분하다. 현존하는 한국 무술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무용총 수박도는 당시 동아시아 고분벽화 문화의 교류와 영향 속에서 그려진 것이지만, 벽화의 역사(力士)들은 한국인의 동적인 기질과 무술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후한시대에 만들어진 하남성 밀현의 타호정 벽화속에 그려진 중국 무술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즉 타호정 벽화의 무술은 일찍부터 농경문화에 바탕한 정착문화를 발달시켜 온 중국인들의 기질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적이기 보다는 정적이고, 직선적이기 보다는 곡선적이며, 공방의 거리가 멀기 보다는 가깝고, 발기술 보다는 손기술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과 중국의 두 벽화 그림의 비교를 통해 한중무술의 성격을 밝히는 방식은 다소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마문화의 기질에 바탕을 둔 한국무술과 정착문화의 기질에 바탕을 둔 중국무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데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삼국시대 이후 한국의 맨손무예는 독자적인 발전과정과 함께 주변국과의 교류 속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문헌 속에서 확인되는 맨손무예는 수박, 권법, 변, 타권, 대권, 탁견, 슈벽, 시박, 권척, 줄교, 태견, 수벽치기 등으로 다양한 기술로 분화되어 나갔다. 발기술 보다 손기술을 위주로 하는 권법(슈벽, 수벽치기), 손기술 보다 발기술을 위주로 하는 수박(변, 권척), 손과 발 보다 몸 기술 위주로 하는 시박(줄교)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맨손무예를 대표하는 명칭이 바로 태견이다. 18세기 『재물보』에서 처음 확인되는 탁견은 당시 맨손무예를 총칭하며 1920년에 태견으로 표준화되었다. 1955년에 처음 제정한 태권도의 명칭도 전통무예를 대표하는 태견을 음차한 데 따른 것이다.

태견은 전쟁터나 군대에서는 ‘일격필살’의 ‘살상무예’로 기능하지만, 민간에서는 서로의 힘을 겨루는 ‘놀이무예’로 행해졌다. 특히 놀이무예로서의 태견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손기술 보다 발기술 위주의 겨루기를 발달시켰다. 상대를 유인하기 위한 품밟기와 활갯짓과 같은 태견 동작도 겨루기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었다. 민간에서 더욱 성행한 태견은 개인 간의 놀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시풍속의 하

나로서 마을 또는 지역 간의 겨루기 대회로 발전하였다. 조선 초기에 이미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인 작지골에서 매년 7월15일에 두 도의 주민들이 수박회를 즐겼다는 기록은 이를 잘 말해준다.

수천 년간 민간무예에서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발 기술 위주의 겨루기 전통은 오늘날 태권도가 발기술 중심의 스포츠로 발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태권도는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에 오키나와(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권법 등을 배운 초창기 태권도인들에 의해 탄생하였다. 하지만, 태권도는 주변국 무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근대식 무예스포츠이자 스포츠무예인 경기태권도로 발전시켰다.

태권도는 한국 근대무술로 형성되는데 분명히 주변국의 무술 영향을 받았고, 전통 무술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무술이라는 창조적 수용을 달성했으며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한국무술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하였다. 특히 전통무예인 태권의 명칭과 발기술 위주의 기술체계, 그리고 겨루기 전통 위에서 탄생한 태권도는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 내지 스포츠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게 된 것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에 채택된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으로 이어진 사실은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 내지 스포츠를 넘어 세계적인 무예스포츠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사실 태권도는 금세기 최고 수준의 스포츠가 틀림없다. 일정한 규칙아래 위험성을 제거한 채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공방을 펼침으로써 인간 내면의 공격성을 해소하고 정신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올림픽 종목 가운데 태권도만큼 온몸을 활용하여 인간의 공격 본능을 해소하고 정신을 정화시키는 스포츠는 거의 없다.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까닭도 바로 무예스포츠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품새, 격파, 겨루기의 조화로운 수련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신 단련과 이를 통한 자아완성의 가치체계는 태권도가 갖는 본질이자 정체성이다.

20세기 세계스포츠의 흐름이 서양 스포츠의 세계화 시대였다면, 21세기 세계스포츠의 전망은 동서양 스포츠의 조화로운 공존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를 여는 첫 올림픽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이 된 사실은 향후 새로운 천년에 한국의 태권도와 같은 무예스포츠의 비중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태권도 공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태권도공원의 계획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매우 뜻 깊고 반가운 일이다. 사실 오천년 한국역사 속에서 동시대의 전 세계인들이 알고 즐기는 한국문화는 아직까지 태권도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태권도가 한국 최고의 문화이자 동시에 한국이 낳은 세계문화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태권도는 이제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몸 기르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세계 185개국에서 7천여만 명이 태권도를 즐기고 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심신수련을 통해 자아완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태권

도의 보급은 한국이 지구촌 가족들에게 나눠준 희망이요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가 오늘날 인류의 몸 기르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권도의 21세기 문명사적 의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점에서 볼 때, 태권도 공원 역시 문명사적인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공원은 지역을 넘어 국민 전체의 공간이요, 태권도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메카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발전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은 스포츠 가치의 편중화를 들 수 있다. 태권도를 연마하되 심신수양을 통한 자아완성의 가치보다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가치만의 추구가 그것이다. 경기태권도 위주의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는 현 단계에서, 인간한계의 도전이라는 스포츠 정신과 심신수양을 통한 자아완성이라는 무예 가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발전시키는데 이제 모두 지혜를 모아야 때다. 그것이 곧 한국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요, 한국의 무예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 태권도 정신교육을 위한 연구

안 용 규  
(한국체육대학교)

## 1. 머리말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독특한 무예로써 동양 무술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무도이자 스포츠이다. 그것의 한 가운데는 기술의 개발전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정신적인 태도로써 ‘태권도 정신’이라고 부른다.

태권도 정신은 철학적·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이 부여된 내용이지만 태권도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적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철학적 의미에서 정신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로 규정되지만 사전적 의미에서 정신이란 「생각이나 감정 따위의 작용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마음을 가지는 방향 또는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으로 풀이된다.<sup>24)</sup>

이러한 태권도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이다. 수련상황에서 얻어지는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자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태권도를 넘어서 세계의 각종 무술과 대화하고, 나아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 행위에 내포된 근원적이며 이상적인 인간 의식, 그리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이거나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 영역에서 정신은 기술과 신체면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태권도 기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원적 의지이며, 태권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실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의 필요성은 첫째로 태권도계에서 공인된 정신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태권도의 외현적 발전과 더불어 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며, 확고한 가치의 설정을 위해서이며, 셋째로 태권도의 교육교재로서 그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2007년 북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중국의 우수에서 비롯되었다는 망언을 하였으며, 대중 태권도라는 명명아래 태권도장이 중국

24) 김영선(1995).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대한태권도협회 계간지.



의 사회 속에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태권도의 정신성은 뒤로한 채, 태권도 경기인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태권도 모국으로써 태권도 역사 확립과 함께 태권도 정신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태권도장에서 태권

도 정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권도 정신교육을 위한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현재까지 선행되어 온 기존의 태권도 정신에 관한 문헌 및 연구물은 한승조(1995),<sup>25)</sup> 김영선(1995)<sup>26)</sup>, 이종우(1996),<sup>27)</sup> 이경명(1997),<sup>28)</sup> 이경명(2002),<sup>29)</sup> 안용규(2000)<sup>30)</sup>, 안용규(2006)<sup>31)</sup>, 이규석외(2006)<sup>32)</sup> 등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태권도 정신에 관한 논의에서 태권도가 행위철학으로서 신체교육과 함께 인간 형성을 위한 훌륭한 정신교육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태권도 정신으로써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성에 관한 논의가 주관적 내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 교육에서 태권도 정신성을 개발해내는 일은 태권도의 육체적 수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며, 현재 태권도가 처해 있는 태권도장 존폐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장 및 태권도 교육의 장에서 정신교육을 위한 항목이나 단계를 구성하는 논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교육의 구성원리는 태권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징적인 정신성이라고 할지라도 수련의 과정이나 수련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항목이나 단계이어야 한다는 제한점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항목이나 단계는 최종적 지식, 즉 정신성 확립을 위한 논의라고 볼

25) 한승조(1995). 국기 태권도 교본. 태권도 정신 철학. 서울: 국기원. 37~42.

26) 김영선(1995). 앞의 책.

27) 이종우(1996). 태권도 정신. 국제심판 강습교재. 서울: 국기원. 9-13.

28) 이경명(1997). 태권도. 서울: 대원사.

29) 이경명(2002). 태권도의 바른 이해. 서울: 상아기획.

30) 안용규(2000). 태권도(역사·정신·철학). 서울: 21세기교육사.

31) 안용규(2006). 태권도 탐구논리. 서울: 21세기교육사.

32) 이규석외(2006). 태권도 역사 및 정신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태권도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태권도 정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확정적인 정신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한 정신성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이나 생활습관과 통찰, 경험, 이해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각기 다른 내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관성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정신성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태권도 정신은 최종의 지식 군이 아닌 가변성을 지닌 잠정적 지식 군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교육을 위한 정신성의 구성을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고 면밀하게 설명될 수 있는 구체적 원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 2. 태권도의 교육적 의미

태권도는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종교성과 교육적 양면성을 가지고 인격 형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체의 중요 부위를 단련시킴으로서 신체를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동적인 무도이다.

정신과 육체, 즉 정신과 상응하기 위하여 신체적 조건과 역량을 부여하는 태권도는 인간의 신체 동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실현이며 자기 자신이 수련하는 자기 교육이다.

지금까지 태권도 교육은 신체적 기술을 단련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정신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적용시키는데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 단련을 통한 정신 수련은 태권도의 본질적 목적이며 현대인의 건강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분야로서 태권도는 충분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는 교육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태권도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격 수행 방법의 하나로 인간의 신체구조를 체계적으로 동작화시켜 신체 부위를 합리적으로 단련시켜 나가는 무도다. 따라서 육체적인 단련과 정신적인 수련의 양면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심신 수련의 교육인 것이다.

태권도는 전통적으로 호신과 호국을 위하여 수련되어 왔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인격 완성이고, 이를 위해서 동적인 신체 여건을 형성하는 가시적(可視的) 행위와 정신적 단련을 위한 불가시적(不可視的) 수행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자기 교육이다. 정적(靜的)인 정신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적인 태권도를 수련시킴으로써 신체적인 장해와 불균형 없이 건강할 때 정적인 사유나 사고 등이 원만하게 수행되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태권도는 각 개인이 직접 자기가 수련하는 인간 교육의 한 분야로서 개인의 인격 완성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개인 요구에 의하여 각자 건전한 정신과 육체적 발달을 도와주는 일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교육은 개인의 인격 완성을 위한 심신 수련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학생이나 수련자의 발달을 최대한 촉진하고 조성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태권도의 교육자는 목표와 방향에 관하여 수련생 등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고 또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교육자가 목표에 도달할수록 적당한 지도 내용과 방법을 수련생들에게 적용시키며 교육자와 수련생들이 협력하여 집중한 노력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지도 목표와 수련생의 수련 목표는 같은 것이다. 태권도 교육자나 수련자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자가 처음부터 스스로 계획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가 계획 수립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여러 가지 적성을 파악하고 환경과 개인 요구, 수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장면(場面)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태권도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수련 의욕을 높이며, 욕구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르치는 일은 태권도 교육 목표에 대한 효과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관찰은 개인의 노력과 방향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욕구와 흥미에 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나 수련자의 목표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은 교육자가 강의 혹은 수련 동안에 반복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수 있다.

욕구란 생물학적으로 현재에 결핍을 느껴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의욕을 말한다. 그러므로 욕구는 유기체 내부의 긴장이며 목적물에 대한 자기 심리 상태를 체제화 하려는 긴장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목적에 도달하면 그 긴장은 해소되고 평온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현재에 결핍을 느낄수록 욕구는 더욱 높아지며 욕구 충족의 행동은 강해진다. 따라서 평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욕구 수준을 높이고 다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함으로서 태권도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교육 방법이 전통적으로 실기 위주였기 때문에 종래의 사범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교육 방법의 적용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수련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련자의 소질, 기술 향상 능력, 정신 상태, 신체조건 환경 등에 적합한 지도 방법, 지도 내용, 방향과 구체적 수련 방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태권도의 궁극적인 정신적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 체험을 제공해 준다.

흥미(interests)라고 하는 말은 욕구의 대상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따라서 욕구가 없는 동작과 행동에는 흥미는 없다. 욕구와 흥미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태권도의 실기 수련에 나타난 기술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고단자들의 차기나 겨루기 동



작에서 고도의 기술은 초심자나 유급자들의 욕구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태권도 기술의 진척과 향상은 수련자들의 당연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련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동작이 점차 향상됨을 스스로 알 때나 사범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더욱 더 강한 수련

의욕을 일으켜 연습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흥미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뜻하며 아울러 수련자의 정신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정신 교육이라고 함은 기술의 교육과 함께 태권도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정신과 신체 양면의 병행 수련이 곧 목표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훈련 단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 교육에서 정신수련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기술의 전수만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적용·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권도의 정신 수련 방법이 교육자들에 의해서 이미 체계화되어 실시되고 있어야 할 일인데도 실제로는 기술의 수련에만 치중하고 정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한 정신 통일, 정신 집중의 중요성만 수련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물론 태권도의 수련은 육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신체의 조건이 우선된다고 생각하나 정신적인 바탕이 없는 신체적인 훈련은 동물적 기능 양성의 부조화 결과를 초래하여 본래 태권도 교육의 목표와 상반되게 되는 것이다.

태권도 정신의 교육은 두 가지 범주로 설정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태권도의 목표를 향하는 정신적 태도와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방향을 정립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정신 집중의 훈련 방법이다.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련자 개인의 정신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기본 과제로서 인간 행동의 지배 요인인 정신 작용에서 효과적인 태권 작용 변화와 기술 변용의 지배 요인인 정신 집중 훈련은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손덕성은 태권도의 필수적 훈련 요소를 마음, 육체, 정신으로 보았다. 그는 마음의 훈련은 태권도 정신 교육의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마음 집중(마음의 힘 집중, 혹은 기의 집중), 혹은 정신 집중의 훈련 방법을 말하고 정신 훈련은 첫번째 말하는 총체적인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태권도 정신(武德)이라고 한다. 특히 그는 마음 집중 훈

련은 태권도 정신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 훈련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고려말, 조선시대에 현재의 태권도와 유사했던 무술이 무사의 필수 교육 과목 혹은 일반화되면서 마음 집중 훈련의 전통적 방법은 사라지고 다만 기술 훈련에만 치중했고, 기술 훈련을 하면 마음 집중 훈련이 자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시의 마음 집중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었던 선수행법이 점점 사라지고 가시적인 기술 수련만 전승되어 왔다. 다만 선문(禪門)에서는 지금도 무도 수련에서 좌선이 마음 집중의 훈련 방법으로 전수되고 선무일치(禪武一致), 선검일여(禪劍一如) 등의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태권도 현장, 즉 태권도장에서는 막연히 정신 통일이나 마음 집중이라는 용어으로써 구체적 방법이 없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 교육의 기본 문체 중 마음을 집중시켜 기술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집중 훈련을 선수행법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행은 선문(禪門)에서는 조신법(調身法), 조식법(調息法), 조심법(調心法)이 오래 전부터 선문 무도 수련의 기본 교과 내용으로 수련되었고, 우리나라에 선종과 더불어 중국 무도 전래시에 고유의 무술들과 융합, 전승되어 오다가 조선시대부터 일반화 되면서 선수행법이 선문에서 전수되었다. 따라서 태권도에서 마음 집중 수련의 구체적인 방법인 선수행법은 태권도 정신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은 불교나 종교 수행 목적의 전유물이 아닌 무도 수련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 교육의 정신적 가치는 현대인을 반복적인 자력 수련을 통하여 심신의 작용을 능동화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하는데 비롯된다. 심신의 습관적 단련은 정신적으로는 의지력, 창조력, 극기력을 키울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는 민첩성, 강건성을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써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기 조정력(self-control power)을 배양하여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인 자신감과 조정 능력은 정신적 이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일시적인 이상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방책이며, 집단 수련을 통한 집단성의 육성은 좋은 대사회적 성격과 태도를 갖출 수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소외감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겠다.

특히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과 학문적 욕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태권도는 보다 현대 심리, 현대인의 정신, 현대 사회의 특징과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종교 철학적으로 연기론과 중도사상을 통한 정신적 가치 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태권도 수련자들은 태권도가 단순히 주먹과 발을 쓰는 신체 중심의 의식에서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는 정신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현대적 무도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3. 태권도장의 존폐위기와 태권도 교육

최근에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 즉 태권도장의 관장과 사범들은 태권도 관련기관의 문제점만을 이야기하며 비판적 사고로 일관해 왔을 뿐, 지도자 스스로의 문제나 현재 교육기관에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자각을 한다거나 자아문제를 그다지 크게 바라보고자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태권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는 가장 기본적 명제를 바탕으로 태권도 지도자가 변해야 태권도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방과후 학교' 교육정책과 더불어 태권도장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태권도장 교육의 의미 찾기에 기본을 두고, 그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 1)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태권도장의 위기

2004년 2월 17일 정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에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범람하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현실화 하겠다는 대체방안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의 정책시행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으로는 사교육 대체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단 방과후 교육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상 지원을 통해 평등교육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를 총 368억원 책정하여 지역교육청별 1개교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했으며, 시설환경의 개선비용 및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2004년에는 시범학교 1개교당 3,00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2005년에는 8,0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2006년 7월과 12월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2006년 5월 4일에 대통령은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금이 발생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즉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로 인해 태권도장의 위기가 촉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태권도의 미래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태권도장 없는 태권도의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태권도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한 것이다.



과연 방과후 교육 정책이 태권도장의 존폐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태권도 수련생 감소의 절대적 요인과 함께 학교당국과 교육비 경쟁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 수업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오후 2시 30분에서부터 5시 30분까지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수련을 하는 황금시간대이며, 결국 태권도장의 수련시간을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태권도장의 주요 고객이 어린이들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소년기 학생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른 년차별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1990년 41명에서, 1995년 36명, 2000년 35명, 2005년 31명으로 줄어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학교를 상대로 하는 교육비 인하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장의 수입이 1/3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반 학원이나 태권도장에서의 교육비보다 1/3 이상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과후 교육 참여율과 그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이 2005년에는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31%였으며, 만족도가 54%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에는 참여율이 40%이며, 만족도는 65%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65% 이상의 참여율에 그 만족도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위기극복을 위한 태권도장 교육의 방향성

태권도장 경영자들은 이제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이 때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장의 살아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태권도 관련기관의 조력에 앞서 태권도 지도자 스스로가 태권도장 교육의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학교체육과 관련된 기초체력 프로그램, 유희성 오락 프로그램의 생명성, 경쟁력 있는 교육비 문제 등, 이러한 부분에서의 방향을 근원적인 경향성의 구체화 및 순화를 위한 태권도 교육으로의 본질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 지도자의 자아혁신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르는 변화를 거듭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방과후 학교 정책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도장에서 수련을 하게 될 학생들은 극히 제한된 인원수로 한정될 것이며, 몇 년 안쪽에 10,000여개의 태권도장 중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단지 유일하게 살아남는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근간으로 하는 독창적인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장이거나 부모님들이 인간교육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은 태권도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독수리의 삶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는 독수리로 알려져 있다. 독수리는 최대 70년 정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수리가 그렇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40살쯤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 독수리가 약 40년 정도가 되면 발톱이 노화되어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고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어 지게 된다. 이제 독수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 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런 갱생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독수리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가 그곳에 둥지를 지어 머물며 고통스런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돌아난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새로운 발톱이 돌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는데, 이렇게 하여 약 반 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돌아난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을 날고, 젊은 시절의 먹이사냥을 하던 것과 같이 풍요롭게 30년의 삶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독수리가 40살이라는 기로에서 이를 극복하고 모두 70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극복을 해낸 독수리만이 70년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행정자치부, 2006).

현재까지 우리는 독수리가 누려왔던 젊은 시절과 같이 태권도장을 차려놓기만 해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훨씬 나은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았으며,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다. 자리가 좋은 곳에 태권도장을 차려놓고, 다른 도장이 해왔던 것처럼 몇 번의 홍보나 하고, 부모와의 면담과정에서 태권도의 가치나 들먹이면서, 누구나 한번 정도는 거쳐 가는 장소로서 인식되었던, 그래서 앉아만 있어도 입관이 들어와서 최소의 수입원이 보장되었던, 그래서 태권도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태권도를 수련했던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것 없으면 태권도장이나 차리지’라는 안일함으로 귀착되었던 사업, 누구나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업이 바로 태권도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주하는, 그리고 대충만 돌아보아도 타인의 조정을 받지 않고 생계정도가 보장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의 태권도장 경영이 절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이미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태권도장의 교육방법은 무도성 인간교육의 장으로 거듭

나야만 한다. 또한 태권도지도자 모두는 현재 태권도장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냉철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태권도장의 살아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모든 태권도지도자는 태권도 관련기관의 조력에 앞서 태권도장 교육의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학교체육과 관련된 기초체력 프로그램이나 유희성 오락 프로그램을 교육의 초점과제로 잡았던 교육목표를 근원적 경향성의 구체화 및 순화 위한 태권도 교육으로,



즉 태권도의 본질적 의미 전달을 위한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지도자의 자아혁신이 불가피하며, 태권도장이 진정한 정신교육의 장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태권도의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에서는 특기지도를 위한 강사를 채용하게 될 것이고, 정부의 지원금을 고려한다면 틀림없이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젊고 유능한 유자격자 채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즉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자격증을 보유한 능력있는 강사들이 각급 학교로 몰려들 것이며, 각 태권도장의 경영자들은 그들과의 경쟁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를 근간으로 하는 독창적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택된 태권도장이거나, 학부모 스스로가 인간교육에서 꼭 필요한 장이 태권도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태권도장이 정신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때만이 생존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태권도 수련체계를 경기위주의 수련에서 무도적 수련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놀이를 위한 놀이가 아닌 태권도 교육을 위한 놀이의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태권도지도자를 육성하는 각 대학의 태권도학과에서도 수업이나 수련체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진정한 태권도 교육의 의미를 찾아 무도성 태권도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권도학과 교수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도장경영에 탁월한 자이거나 무도수련 경험자의 채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학년 위주의 놀이형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무도교육의 수련체계, 즉 정신교육의 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초등학생 위주의 저학년 수련에서 탈피하고 수련 연령층의 다변화를 위한 수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의 한 방법은 타 무술교류 통한 수련의 다양화를 이루는 것이며, 심사의 질을 높여

태권도 수련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다. 결국 무도교육의 태권도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수련층을 공략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태권도 관련기관에서도 위상 제고를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즉 태권도장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써의 책무를 완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태권도지도자는 끊임없는 학습의 길에 서있어야 한다. 만일 변화하지 않는다면 경쟁자가 그들의 먹이를 채갈 것이며, 닳고 닳은 부리만을 안은 채 서서히 죽어가야 할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제 태권도 수련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봉착한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지도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무엇을 없애고, 줄이고, 키우고, 새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태권도지도자의 변화를 위한 학습문화와 분위기가 먼저 정착되는 것이 제도에 우선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태권도 수련생이 없으면 태권도장도 없다. 태권도장 없는 태권도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순간의 유희성 교육이 아닌 근원적 태권도 교육, 즉 무도성 교육으로써 미래의 인간교육을 위한 태권도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태권도장은 교육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태권도 관장과 사범은 마케팅업자나 사업가가 아닌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 3) 태권도장에서 정신교육의 필요성

태권도지도자는 현재의 상황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해야만 하며,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심각 상황을 인식해야 하며, 안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발로 뛰고 움직이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 육성을 위한 출발은 태권도 교육을 위한 지도자 자아혁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권도 미래를 위한 과제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도자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도장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제자리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태권도 관련기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태권도 관련기관은 권력단체가 아닌 조력 단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태권도 관련기관에는 태권도장 전문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던지 태권도장을 위한 부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단

지 각종 위원회 중에 한 개의 부서로서 도장분과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존속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태권도장 지도자의 재교육에서부터 조력에까지 도장교육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태권도 교육은 놀이교육에서 무도성 인간교육의 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태권도장은 육체교육을 통한 정신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또한 태권도장은 사회운동으로서 정신과 철학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도장별 봉사활동이나 캠페인에 동참해야 하며, 무도교육을 통한 정신성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태권도 수련장의 명칭이 통일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체육관, ○○학원, ○○스쿨 등의 한국어에서부터 영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곳은 태권도장(跆拳道場)이며, 과거로부터 道場은 도를 닦는 곳으로 본래 의미는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은 신체만을 단련하는 곳으로써 신체만의 능력개발과 유지, 증진의 의미가 존재하는 곳을 의미할 뿐이므로 태권도체육관이 아니라 태권도장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태권도장이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 지식만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학원으로까지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태권도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장은 어느 한쪽만을 지도하는, 즉 육체교육만을 지도하거나 지식전달만을 추구하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심신수련을 통하여 완성된 인간에 이르는 교육의 장이 바로 태권도장이다. 따라서 태권도를 통한 인간수양의 장소를 ‘태권도장’이라고 해야만 한다.

그리고 태권도장을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을 현재 4단에서 5단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태권도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련을 해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태권도 성인층 확보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태권도장 프로그램의 조력을 위해 탄생한 태권도컨설팅회사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태권도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태권도 관련기관과 용품업자와 컨설팅회사 모두는 태권도에 관한 최고의 지식을 지닌 태권도지도자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태권도 도복의 사상적 의미를 전달해야 하며, 또한 띠의 색채를 통일하는 문제에도 나서야 한다. 현재 각 도장마다, 태권도 용품회사마다 유색도복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도복 띠마저도 회색띠, 밤색띠, 람보띠 등 약 12가지 색띠를 준비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복과 띠의 색채는 지도자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도복과 띠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 색채학적 의미를 지닌 지식체계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홍보를 뒤로 하고 경기단체로 존립하기에 급급했던 태권도 관련기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도복과 띠의 색채는 이수신편(理藪新編)에 따르면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方位, 季節, 色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복의 흰 색은 우리 겨레의



충절을 표현한 색채이며, 사심 없는 선비의 깨끗한 마음을 읊긴 청렴결백(清廉潔白)의 색채이고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사상과 일치하는 자연동화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도복의 흰 색이 갖고 있는 정서는 신성, 고귀, 순결, 위엄, 평화, 승리나 완속을 향한 출발을 상징한다(안용규, 2006). 더

구나 도복이 의미하는 철학적 무예성은 도복을 청결히 간수하며, 심신을 갈고 닦는다는 도의(道衣)를 중시하는 것이다(이경명, 2000).

또한 띠의 색채 역시 철학적 사상의 근본이 없는 주관적인 무분별한 색채를 사용하는 안된다. 전통적으로 태권도 띠의 색채는 무급은 흰색, 8급~7급은 노랑색, 6급~4급은 파랑색, 3급~1급은 빨강색, 초단 이상은 검정색 띠로 사용되어 왔으나 태권도에서 오색으로 단계를 설정한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음양 오행적인 우주관에 바탕으로 하는 사상체계에서 출발하여 양(陽)인 오방정색(五方正色)으로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흑색과 음(陰)인 간색(間色)으로 녹색, 벽색, 홍색, 유향색, 자색을 단계별로 삽입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룬 10단계로 구성하는 바람직하다. 즉 무급, 8급~1급, (품)단으로 구분하여 무급은 정색인 무(無), 시작(始)이라는 상징의 흰색, 8급은 흰색과 노랑의 간색인 벽색, 7급은 정색인 노랑색, 6급은 간색의 중앙색인 유향색, 5급은 노랑과 청색의 간색인 녹색, 4급은 정색인 청색, 3급은 빨강과 노랑의 간색인 홍색(주황색), 2급은 정색인 빨강색, 1급은 빨강과 흑색의 간색인 자색(紫色), 유평자는 검은띠와 빨강띠가 공존하는 품띠, 유단자는 시(始)와 종(終)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띠의 색채를 설정하는 것이 철학적이며, 색채학적 근본원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장은 태권도 교육의 장이다. 그리고 관장이나 사범은 경영자나 종업원이 아닌 교육자라는 사고에서 행동하고 교육해야 만이 태권도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 교육의 한 가운데에는 태권도의 최대 가치로 부각될 수 있는 태권도 철학, 즉 태권도의 형이상학적 논의가 가능한 태권도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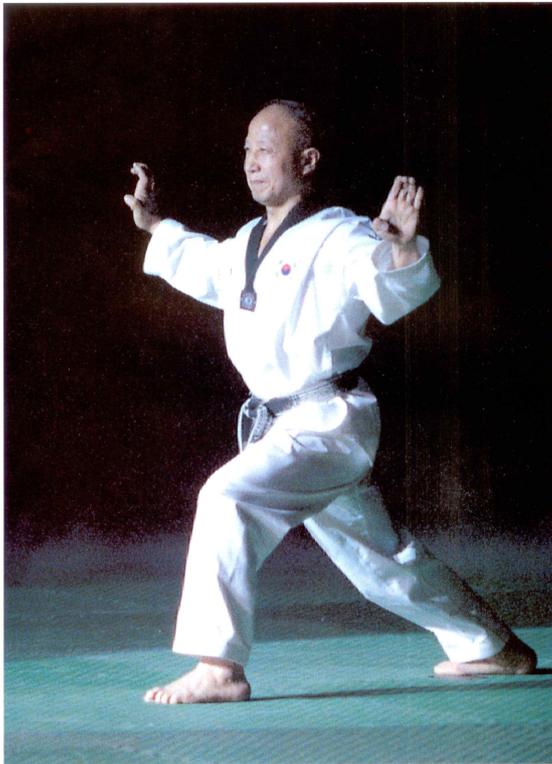
따라서 항상 공부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학문적 환경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의 근원적 원리가 되는 내용과 그를 토대로 나타나는 태권도의 정신성에 대한 교육을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계에서 공인된 정신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태권도의 외현적 발전과 더불어 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고 학

고한 가치의 설정을 위해서도, 또한 태권도 교육에 있어서 근거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 4. 태권도 정신의 근원

태권도 정신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신라의 화랑도정신, 조선의 선비정신, 그리고 6·25 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예(禮)를 숭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경훈씨가 '남개영기'

태권도 정신은 수련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견되는 정신적 가치로서 개발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측면 모두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개발되는 것일 수도 있다.

수련상황에서 획득되는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품새나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 태권도 동작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래성을 위해 예견되는 태권도 정신의 바탕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함께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리고 세계인의 공유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는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획득되는 정신은 극기정신과 예의정신이다. 태권도 수련과정에서는 자아의 극기를 통해 부단한 인내와 수련이 요구되며, 수없이 많은 연습과정에서 인내와 극기정신이 체득된다.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극한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 극기정신인 것이다. 또한 태권도 수련과정에서는 예의 전통적인 실천으로 겸양과 화목 그리고 질서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태권도장에서 사제지간의 관계와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의정신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며, 이러한 윤리적 덕목은 태권도 교육의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태권도정신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중요한 하나는 조화정신이다. 조화를 사

랑하는 태권도의 정신적 특징은 태권도 동작과 도복에서 나타난다. 태권도 동작이나 도복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방각(圓方角)의 삼재사상(三才思想)은 우리나라 전통사상에서 중시해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정신은 세계인의 심신수련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미래성에 커다란 의미를 전달해 주는 정신적 가치이다. 태권도 수련에서 체득되는 조화정신은 세계의 모든 인종 간에 사랑과 평화를 전달해줄 것이며,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심신이원론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던 서양과는 달리 심신일원론적 정신세계를 유지해왔다. 무인이 통치를 하였던 고대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신라의 화랑정신으로 심신수련과 함께 충효가 강조되었다.

특히 조선의 선비들은 몸을 움직이는 격식과 행위가 정신적 형성과 불가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로서 예절과 도덕을 동시에 추구했다. 선비들은 몸의 훈련에 있어



서도 정신 혹은 태도의 계도가 주도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정신이 태권도 수련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신과 선후협력을 통하여 태권도 정신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통해 형성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정신이 태권도에 접목되었으며, 이러한 평화정신이 태권도의 수련상황이나 도복과 그 상징에 스며있다.

태권도는 동양의 무예나 또 다른 무술과의 소통과 대화에도 문이 열려 있어 태권도 정신은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태권도 정신은 현대인의 관심사인 복지, 건강, 행복이라는 보편적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인

간계발의 전통적 정신과도 잘 어우러져 있다.

즉 이러한 인간계발의 전통적 정신은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이 추구하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한민족의 정신성과 합목적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인간계발이라는 공통이념으로써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태권도 정신이며, 우리의 문화 속에 스며있는 보편적 정신이자, 태권도가 앞으로도 지향해 나아가야 할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실제적으로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 수련상황에서의 예절과 규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그리고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이거나 상징적 내용이어야 한다. 즉 이러한 태권도의 대표적인 정신이 바로 극기정신, 예의정신, 평화정신, 조화정신이다.

## 5. 태권도 동작의 심층구조와 태권도 정신

태권도 동작의 심층구조는 대타적인 측면과 자기내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대타적인 것은 공격과 방어의 움직임이 있으며, 자기내적인 측면은 손과 발의 움직임이다. 두 측면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항상 결합되어 있다. 또한 대타적인 측면은 태권도의 겨루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내적인 측면은 품새와 관련되어 있다.

### 1) 대타적 측면

대타적인 측면은 무술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서기, 곧 상대방의 정면을 응시하면서 맞서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격의 능동성과 방어의 수동성이 있다. 이러한 공격과 방어의 동작은 상대방이 적일 경우 살상의 폭력이 되지만, 태권도는 이러한 폭력성을 제거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나의 공방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존재는 나의 공격과 방어가 그리는 동작에 따라 반응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상대방은 나와 관계가 대항으로서가 아닌 전체적인 공명의 장에서 나와 더불어 협동하는 조화로운 존재가 된다. 적이 아닌 친구가 되며, 기예의 완숙도를 가늠하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비록 스포츠의 경쟁 원리에 따라 승패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훌륭한 맞수 없이 미학적으로 멋진 겨루기는 없는 것이다.

태권도의 대타적 원리는 주로 타인과 자신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조화의 궁극적 지향 속에서 자신은 고립되고 유폐된 존재가 아닌 타인의 존재가 필요한 공동의 존재라는 자각이 생겨나고,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로부터 태권도는 타인을 복속시키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힘에서부터 타인을 감화시키는 인격의 힘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조화의 원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신론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 2) 자기내적 측면

태권도의 자기내적 측면은 손과 발의 동작에서 찾을 수 있다. 태권도라는 손과 발을 대대적으로 파악해서 명명한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태(地踏)와 천권(天拳)의 이름을 가진 품새에서도 반영되어 있지만, 손과 발을 하나의 짝 개념으로 생각한 전통적인 음양사상의 관계론적 논리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신체에서 상체가 양이라면 하체는 음이며, 오른쪽이 양이라면 왼쪽은 음이고, 손이 양이라면 발은 음이 된다. 신



체의 동작과 결부된 이러한 음양의 계열화는 태권도 안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 태권도의 동작에서 손은 양이며, 발은 음이다. 이 둘의 끝없는 교화 속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완숙한 태권도 기술이 생겨나는 것이다.

품새는 태권도 동작의 반복적 학습과 학습의 목표가 되는 형상을 제시한 것이다. 품

새는 동양 무술의 궁극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무심의 상태에서 몸의 동작과 마음의 의지가 완전히 일치되는 경지를 지향한다. 태권도 역시 동양 무술의 오래된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는 동양의 여러 명상법들, 즉 불교의 수양법, 유학의 수신, 도가의 도인 및 양생술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내적 측면은 품새나 무술의 기예를 습득하기 위해 사물과 나의 본성에 대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태권도는 서구의 근대적 세계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적 토대에서 서양의 스포츠와는 매우 상이한 점이 많으며, 어떤 것은 대립적이며 타협할 수 없기도 하다.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호흡법이 이루어진 뒤에라야 태권도 동작의 완숙성이 본래적 의미를 갖는다. 태권도에서 손과 발의 힘만으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내적 본성과 손발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손과 발이 서로 전체의 리듬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올바른 기예를 습득할 수 있다. 곧 마음과 몸의 전체는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은 호흡의 주체가 아니라, 호흡에 자신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태권도 움직임의 구조적 원리는 대타적·자기내적 측면의 심층구조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심층구조로부터 대타적 측면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조화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자기내적 측면으로부터는 무심을 통한 자신의 몸과 마음의 통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 움직임의 구조적 원리에 함축된 철학적 의미는 신유학의 수신론적 전통에서는 매우 빈번하고 친숙한 철학적 주제이며, 그것의 핵심적인 원리와 부합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수신론의 전통은 승문 위주였던 선비의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태권도의 성장배경으로 풍부하게 잠재하고 있었던 내재적 조건은 원리적으로 문을 숭상하거나 무를 숭상하는 것을 가리지 않는다.

## 6. 태권도 정신교육을 위한 구성과 그 내용<sup>33)</sup>

33) 이 항목은 2006년 태권도진흥재단 연구지원금에 의해 조성된 결과물로서 이규

태권도는 인간의 몸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를 구성하는 인간의 몸동작은 단순히 근육이나 골격과 같은 육체의 측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태권도의 동작 속에는 육체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발휘되는 동역학(kinetics)적 특징뿐 아니라, 수련자의 인격성(personality)과 정신성(spirituality), 그리고 예술성(artistry)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태권도 수련자의 몸은 단순한 동역학적 운동을 수행하는 동물기계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인격성과 정신성 그리고 예술성까지도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정신성을 간직한 몸(mindful body)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태권도를 수행하는 몸을 이처럼 동역학적 측면과 더불어 정신적 의미까지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전일적 하나(holistic one)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태권도 정신에 관해 논할 수 있게 된다.

태권도의 대표적 정신인 극기정신, 예의정신, 평화정신, 조화정신은 태권도정신의 중심에 서있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에 포함된 각종 예절과 규칙, 도복과 상징, 그리고 동작과 기상에 대한 내용별 분석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태권도 정신의 추출방식은 방법론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되고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교육을 위한 지도목표나 가치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별로 세분화 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권도의 정신들은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 또는 포괄적 개념으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권도 정신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된 추출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는 동작과 기상에 나타난 특징으로부터 태권도 정신을 추출하는 방식, 둘째는 예절과 규칙에 나타난 특징으로부터 태권도 정신을 추출하는 방식, 셋째는 도복과 상징에 나타난 특징으로부터 태권도 정신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3가지 범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삼재사상과 결부되어 있으며, 3가지 범주 내에 5가지의 하위 범주로서 태권도 정신을 두는 근거는 오행(金·水·木·火·土)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삼재사상과 오행사상은 우리의 삶과 문화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성장해 왔으며, 태권도의 근본 원리에서도 이러한 삼재와 오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산재해 있음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교육을 위한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석, 이승환, 한형조, 나영일, 안용규, 노영구, 안근아의 공동연구로 집필한 태권도 역사 및 정신에 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 1)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 나타난 정신적 특징

### (1) 직(直)의 움직임 - 정직(正直) 정신

태권도의 동작은 직선적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물론 직선적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강(強)만 있고 유(柔)는 없다는 말이 아니다. 태권도는 다른 무술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강과 유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지만, 태권도가 다른 무술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동작의 직선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르기·막기·차기 등과 같은 태권도의 기본 동작은 다른 무술에 비해 확연하게 직선적인 동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의 직선적인 동작은 동역학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성(directness)과 즉각성(immediacy)을 의미하며, 동작에 배어있는 정신성의 측면에서는 정직성(honesty)과 솔직성(straightforwardness)을 나타낸다.

태권도의 직선적 동작에 나타난 정직성과 솔직성은 한민족의 심성과도 일치한다. 한민족은 내면에 간직된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고도 직선적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성격은 상대방으로부터 가해진 손상이나 손해를 당한만큼 돌려주는 것이 응보적 정의의 원리이다. 직(直)은 이처럼 더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대등하고도 공정한 교환방식을 의미한다.

태권도 동작에 나타난 직선적 특징은 정의의 원리와 부합한다. 직선적으로 뻗어오는 상대방의 지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등한 양의 힘과 속도를 가진 막기 동작이



필요하며, 이렇게 직선적인 동작을 특징으로 하는 태권도 기본운동에는 속임수나 잔피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직선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태권도 운동은 단순히 근육과 골격의 기계적 움직임이 아니라 정직성과 솔직성을 근간으로 하는 인격과 정신의 표출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 (2) 성기(成己)의 움직임 - 극기(克己) 정신

극기(克己)란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개의 자기를 갖는다. 하나는 낮은 차원의 자기요 또 하나는 높은 차원의 자아이다. 전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아요 후자는 바람직한 자아이다. 인간의 마음은 두 자아의 끊임없는 싸움터이다. 즉 인간 최대의 승자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선한 자기와 악한 자기, 고결한 자기와 추잡한 자기, 용감한 자기와 비겁한 자기, 참된 자기와 거짓된 자기, 대아(大我)와 소아(小我), 두 개의 자아가 나의 존재 속에서, 치열한 내적 투쟁의 상황 속에서 극기

를 익히게 된다.

「한」의 정신에서와 같이 높은 차원의 자기는 대아요, 낮은 차원의 자기는 소아이다. 즉 우리는 극기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 극기를 통한 자아의 실현은 내가 나를 갈고 닦는 수기(修己)의 과정을 거쳐 성기(成己)에 이르는 것이다. 악전고투(惡戰苦鬪)의 수련을 쌓아야만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덕(德)은 바로 노력의 산물이며, 인격은 공부의 산물이다. 자기성장과 자기 확충의 진지한 수련이 없이는 결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고 다듬는 진지한 수기인(修己人)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기(大器)가 되고 덕기(德己)를 만드는 근본인 것이다.<sup>34)</sup> 수기(修己)를 통해 성기(成己)에 이르게 되며, 성기(成己)는 바로 인간 최고의 선(善)이다. 인간은 무한한 지(知)와 덕(德)과 빛과 힘과 향기를 간직하는 고귀한 생명체이며, 저마다 최고의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인간의 신성한 의무요 최대의 보람이요 기쁨인 것이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율곡은 성(誠)의 공부에 힘썼고 퇴계는 경(敬)의 공부를 강조했으며, 도산(島山)은 사랑하기 공부를 실천했던 것이다.

즉 인간은 극기를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길에 다다르는 것이다. 인내와 극기라는 말은 동의어처럼 활용하지만 인내는 고뇌하고 참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극기는 그 인내의 단계를 넘어선 차원으로서 극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권도의 수련과정에서는 자아의 극기를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무수히 많다. 태권도의 기본동작 중에 부동자세는 극기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동작들은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태권도의 품새는 「한」 철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손과 발의 기술 체계인 서기·막기·지르기·차기 등 공방(攻防)의 기법을 일정한 틀로 구성된 학습 체계이다. 품새는 태권도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데 심신 수련을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한 인내와 수련을 요구한다.

또한 품새의 「한」 철학 원리를 이해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심미적 예술성에 탐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품새는 심신의 조화로운 활동을 위한 철학적 행위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태권도의 품새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동작들은 수없이 많은 연습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배양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기(成己)에 이르러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

즉 태권도의 기본동작인 주춤서기 동작에서부터 서기·막기·지르기·찌르기에 이르기까지 또는 각종 발차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

34) 엄주정(1997). 현대사회와 인성. 서울: 문정사.



겨내는 극기정신이 함양되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기술 동작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동안에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극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수련하는 것은 바로 극기정신을 배양해 준다. 따라서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생성되는 극기정신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개척해주는 커다란 가치인 것이다.<sup>35)</sup>

### (3) 기(幾)의 움직임 - 신동(慎動)(신중) 정신

태권도 운동 중 특히 겨루기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기미(幾微)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공격은 언제나 상대방의 허실을 정확하게 포착해낼 때 성공적인 것이 된다. 상대방의 허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작이 개시되려는 그 미세한 순간(幾)을 잘 포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기(幾)는 유학에서 마음이 움직이려는 미세한 순간을 의미한다. 마음이 싹터 나오기 시작하는 미세한 순간을 잘 포착해서 마음이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려는데 유학적 수양의 목적이 있다. 마음은 조금만 방심해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흐르거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유학에서 강조하는 움직임을 신중하게 하라(慎動)라는 수양법이다.

태권도에서 겨루기는 특히 움직임의 신중함과 관련이 깊다. 함부로 몸을 가볍게 움직이다가는 상대방에게 허실이 노출되어 즉각 공격을 받기 쉽다. 따라서 수련이 잘 된 경기자일수록 함부로 몸을 가볍게 놀리거나 불필요한 동작을 선불리 취하지 않는다. 태권도의 이러한 운동 자세는 인격수양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품새와 겨루기를 통하여 몸에 각인된 움직임을 신중하게 함(慎動)의 자세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인생의 매 순간에 신중함(慎)이라는 인격적, 정신적 덕목으로 드러나게 된다.

### (4) 중(中)의 움직임 - 중절(中節) 정신

훌륭한 태권도 경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격의 정확성과 자세의 균형 그리고 타격력의 적절성을 필요로 한다. 본래 중(中)은 과녁을 정확하게 맞힌다(的中)는 의미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함(中節), 그리고 평형(equilibrium)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태권도가 지향하는 타격의 정확성이 적중(的中)에 해당한다면, 주춤서기 자세와 같은 기본자세는 평형에 해당하며, 타격력의 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은 중절(中節)에 해당한다. 만약 지나치게 승부욕에만 집착하여 몸의 평형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過) 강한 타격을 가한다면, 타격 후에 곧 몸의 균형을 잃고 자신의 허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만약 이와 반대로 일정 정도의 충격에도 못 미치는(不及) 타격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하며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자신감만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

---

35) 안용규(2006). 앞의 책.

지도(過不及) 않도록 지속적인 중용지도(中庸之道)의 노력을 통해서 몸의 평형과 타격의 강도를 조절하는 일은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기 위해 숙지해야할 사항이다.

태권도 운동을 통해 몸에 밴 적중과 중절의 자세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된다. 절도(節度)를 특징으로 하는 태권도는 인간사의 매 순간 마다 감정의 표출을 지나치거나(過) 모자람(不及)이 없이 중절(中節)의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감정의 중절이란 때와 장소에 알맞게(的) 감정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한 정도(中節)로 표출해내는 인격의 예술을 의미한다. 태권도 동작에 간직된 중(中)의 특성은 인격적으로 중화(中和)의 경지를 숭상하는 조상들의 지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정(正)의 움직임 - 정의(正義) 정신

태권도의 겨루기에서 경기자의 몸은 언제나 정면을 향해야 한다. 등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한다든지, 상대방의 배후를 몰래 공격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태권도는 정면적(正面的) 운동이며 대단히 정직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동양의 무술 가운데 어떤 무술은 정면적 자세가 아닌 부면적(負面的) 자세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을 방심케 하다가 불시에 음험한 방식으로 기습적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태권도는 이러한 부면적 경기방식과 달리 정면적 공격과 정면적 수비를 특징으로 한다.

태권도 경기에 내재된 이러한 정면성의 특징은 수련자로 하여금 정정당당하고 정의로운 인격을 배양하게 해

준다. 정의로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정한 방식으로 타인을 기만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세상사에 대처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비굴하게 불의와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피하려들지 않고 항상 정면으로 세상사에 대처하여 정의롭게 행위하는 것이다.

## 2) 태권도 예절과 규칙에 나타난 정신적 특징

### (1) 애국정신

나라의 상징인 국기는 우리 겨레의 얼과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며 긍지, 용기, 희망을 가져다준 정서어린 표상이다. 국제 경기에 우승하여 하늘 높이 휘날리는 국기는 국민 모두에게 자랑과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용기와 희망으로 벽찬 감격을 느끼게 한다. 국기는 자국의 국민에게 감동의 눈물과 기쁨을 주는 정서어린 표상이

다. 국기를 소중히 여기고 국가(國歌)의 뜻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것은 국가정체감(國家正體感)과 민족일체감을 갖게 하며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하게 하는 애국정신의 바탕이 되며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마음가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기의 사랑은 애국심의 발로이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태권도장에는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태권도를 교육할 때에 예의정신의 발로로서 운동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국기에 대한 예(禮)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야말로 그 어느 무도나 스포츠보다도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태권도 수련의 단계에서 국기에 대한 예를 통해서 애국정신이 자연스럽게 함양된다. 또한 태권도를 통해 함양되는 국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애국정신의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화합하고 결속하는 협동정신의 발로가 된다. 태권도를 통한 진정한 애국정신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개인으로 하여

금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각자 스스로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자신의 귀중함을 인식하며, 자신의 삶과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 (2) 충효정신

한민족은 예로부터 충효(忠孝)를 전통적 생활 윤리로 지켜왔다. 본래 효 윤리는 한민족 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도덕 감정에 기초한 가치 덕목으로서 사회관계의 시원이며 민족 고유의 생활 감정이고 인륜 관계의 핵심이다. 한민족의 윤리 사상을 일관하여 오고 있는 효 윤리의 사상적 토대는 「한」의 대아 정신이다.

「한」의 대아 정신은 나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하여 정신을 앞세우며 나와 남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이다. 즉 서구의 사상이 주체와 객체의 투쟁에서 진리를 획득하여 왔다면 우리의 「한」사상은 주체와 객체가 융합되어 얻어진 하나의 정신일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효 윤리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로 인식하였으며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선(善) 실현의 가치 덕목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장 강렬한 애정을 동반한 원초적인 인간관계일 뿐 아니라 절대적인 결합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본심에서 나오는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효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도덕 사상은 「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와 나를 초월하여 차별심이나 분별심을 가짐이 없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한」의 정신이 효 윤리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효의 윤리 사상은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으로 「한」의 내면성인 조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한민족의 전통 사상인 천인합일적 조화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유교에서처럼 인간의 주체적 자아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어 각자의 주체적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버지는 마땅히 인자해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것이다. 단군 개국신화에 나타난 부자 윤리의 전형적인 구조는 부자(父慈) 자효(子孝)의 호혜(互惠) 윤리로 나타난다.

효(孝)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하나의 정적인 융합체로서 이익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의 사회를 지향하게 되며, 공익 우선과 협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간에 정신적인 유대로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어 공익을 앞세워 서로 협동하는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가장 충실히 따르는 것이 대아

를 위해 소아를 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계(五戒)의 주요 덕목이 충효였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개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곧 효를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것은 효의 실천이 충(忠)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충(忠)은 중과 심(中+心), 즉 마음에 중심이 잡혀있다는 뜻이다. 즉 스스로의 주체적 중심을 잡는 데에서

시작하여 개체의 책임성을 강조한 말이다. 따라서 충(忠)이 있는 인간은 책임성이 강한 인간이며 주체적 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거짓이나 불의나 악에 의해서도 잘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sup>36)</sup> 즉 그 결과는 곧 부동심(不動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태권도의 수련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 중에서 부동에서 출발하는 자세는 대단히 많으며 그 동작 자체의 수련만으로도 충(忠)의 근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36) 엄주정(1996). 우리나라의 전통적 충효사상.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논문집. 3.

것이다.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국기에 대한 예를 하는 경우 등은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사범에 대한 예나 상급자에 대한 예 등은 효(孝)의 발로로서 충(忠)의 시작이요 존경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태권도 수련에서의 직선운동은 인간사의 곧은 의지로 표현되며, 이것이 충(忠)과 효(孝)의 기저를 이루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충효의 실천은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규율을 통하여 대아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력 배양에 치중한 교육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의 기본을 전체적인 큰 하나로 둔다는 「한」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윤리관 때문인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정신을 배양해주는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참된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 (3) 예의정신

예는 형식적인 법에 앞서 자연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원리 또는 원칙을 뜻한다. 예의 정신은 인간관계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정신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예의 본질은 구별에 있고 예란 일종의 사회적 제약으로 사회 가치관을 유지하는 동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절이 바른 나라, 즉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어져 왔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주와 인간의 사회에는 따라야 할 하나의 큰 원리가 있다고 보고 그 원리를 존중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이 가진 위대한 도덕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원리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것이며, 이 원리를 어기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멸망한다고 생각할 만큼 도덕적 원리로서 예의 정신을 중요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예절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우지만 사회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신체활동과 더불어 예절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태권도장이다. 특히 이러한 예절교육은 태권도장 교육의 커다란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태권도에서는 예의 전통적인 실천으로서 겸양과 화목 그리고 질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예에서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는 예의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예를 중요하게 여긴다. 태권도에서 존경심의 발로로써 사제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의와 태권도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하게 교육되고 있다. 태권도에서 예의 실천은 몸가짐이 단정해야 하며 상대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권도인이 수련할 때 도복을 단정히 여미고 띠를 바로 매는 등의 몸가짐은 마음을 닦으며 예를 실천하는 행위이다. 예의 지키는 일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며, 결국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다. 태권도는 예로부터 엄격한 예의와 선후배 사이에 질서는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 전통화 되어 있다.<sup>38)</sup>

37) 안용규(2006). 앞의 책.

38) 이경명(1997). 앞의 책.



태권도장은 기술을 습득하며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도의 장소로서 전인격형성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예를 나타낸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예의 표현은 경의와 복종심,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선후배와 동료간에도 존경과 신뢰로서 예를 표현한다.

또한 경기나 연습을 할 때 상대방을 자신의 훌륭한 교육적 대상으로 여기며 예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를 통한 정신수양의 실천이다.<sup>39)</sup> 태권도를 통해 획득되는 예의정신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는 협동정신이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책임감, 그리고 규범과 원칙을 지켜 나아가는 준법정신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4) 준법정신

준법정신의 본질은 법률과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켜서 생활하려고 하는 정신적 자세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주의 만물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자연현상에도 규칙이 있으며, 줄을 서서 자기의 차례를 지켜가면서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이 사회생활에도 또한 규칙이 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규칙을 떠나서 한 순간도 유지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한 준법정신이 필요하게 된다. 준법정신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준법정신은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적 자세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회 전체의 안정적 발전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다. 즉 준법정신은 협동의 원리와의 관련을 맺고 있다. 협동은 힘과 마음을 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책임의식을 수반하는 공동체 형성의 원리이다.

39) 이경명(1997). 앞의 책.



따라서 협동은 준법정신과 더불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큰 활력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공익우선의 협동심을 발휘하여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익에 앞서 남과 더불어 살겠다는 공익정신에 투철한 「한」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의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는 “나는 한국을 어떻게 보았나”라는 책에서 유럽 사람들은 흠 일을 할 때 혼자서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레를 잡고 두 사람이 가레에 매어져

있는 끈을 제각기 잡아당겨 협동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협동심을 칭찬하였다.<sup>40)</sup>

한민족은 예로부터 이웃을 사귈 때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으니 이것은 너와 나의 분별을 두지 않는 대아정신을 바탕으로 한 협동정신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협동정신은 사람의 행실을 믿음은 으뜸으로 한다는 신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믿는 가운데서 발전하였고, 이러한 믿음은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들이 민족의 단결심을 고양시키고 새 역사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태권도의 수련행위로 활용되어 온 품새는 각각의 개별 동작들에 의한 복합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품새는 전체의 동작을 구성하는 구조적 규칙성을 지니며 수련생들은 그 규칙의 범주 안에서 반복적인 수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준법정신은 그러한 품새 수련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다. 또한 품새의 수련에서뿐만 아니라 약속겨루기나 자유겨루기에서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될 규칙준수의 행위가 사회로 전이되었을 때 사회에서의 준법정신을 함양해주는 커다란 가치가 된다. 그리고 품새는 태권도 수련과정의 주된 학습과제이며 일선 도장이나 국기원에서 승단심사를 할 때 학습평가기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사관의 판정에 승복하는 자세와 겨루기를 할 때 규칙을 지키고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는 자세는 사회에서의 준법정신을 고양시켜 준다.

태권도 수련에 의해 단련된 주먹이나 발기술 등을 사회에서 선의의 사용을 하면 정의나 의협이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파괴에 활용하면 그것은 무기화 되어 법에 위배된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선의의 정신을 강조하며 예의정신과 함께 병행하여 교육되어 왔으며, 개체와 환경과의 급조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제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극기정신과도 준법정신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40) 안용규(2006). 앞의 책.

## (5) 평등정신

태권도가 권위주의적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있다. 그러나 태권도 수련에는 평등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외국의 수련자들은 태권도에서 충효정신과 예의정신을 숭상한다는 이유로 태권도가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운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에 익숙한 서양의 수련자들은 태권도가 수직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운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권도는 이러한 오해와 달리 지극히 평등한 운동이다. 태권도의 겨루기에서 누구나 다같이 평등한 경기자로 맞서게 되며, 여기에는 인종의 차이나 연령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일체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권도는 인종이나 연령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수련자와 경기자를 평등하고도 대등한 인격체로 간주한다. 태권도 경기에서 우열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경기자가 얼마나 태권도 정신에 투철한 우수한 경기자인가 하는 점이지,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은 전혀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권도에서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예의 그리고 수련자의 사범에 대한 예의는 상급자나 사범의 지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태권도 정신을 앞서 체현한 인격에 대한 예의이다. 이러한 태권도의 동작에 내재한 정신적 가치는 그 자체로 훌륭한 도덕적 덕목이며 동시에 윤리적 규범이다. 태권도는 그저 단순한 육체적 운동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자체로서 정신수양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윤리체계로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태권도 운동에 내재한 이러한 정신적 가치를 앞서서 수련하고 연마한 상급자와 사범에게는 그 지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정신의 구현체라는 이유에서 존중의 예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예의와 예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평등의 정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훌륭한 인격자나 성직자 그리고 스승에게 존경의 예를 표하는 일이 평등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듯이 태권도에서도 태권도 정신을 체현한 사범이나 상급자에게 예를 표하는 일은 평등이나 불평등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강조하는 예절과 예의는 단순히 지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에 투철한 인격을 향한 존중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 나타난 정신적 특징

### (1) 평화(平和) 정신

「한」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평화성은 전일적이며 타협적이다. 「한」의 평화성은 단지 폭력이나 투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인 의미를 벗어나 사랑과 인도주의를 기초로 하고 양극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예로부터 추구하는 평화의 정신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실현과 조화 속에 만물이 성장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한의 평화 정신은 분열, 대립을 허용치 않는

「한」의 정신에서 연유한 것이다.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에 나타나 있는 환웅천왕과 풍백, 우사, 운사 사이의 군신 간에 또는 단군신화에 나타나 있는 부부간 묘합의 상을 나타낸 바로 「한」의 평화성을 상징화한 것이다. 한민족의 평화정신은 태극기에도 나타나 있다. 태극기의 바탕은 순일무잡(純一無雜)한 민족의 동질성과 결백성을 상징한 것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이 한민족의 기질과 이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sup>41)</sup> 고대 동부 제국들이 백의를 숭상한 것은 공통된 문화적 특징이나 위지 동이전 부여조에 보면 「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숭상해 입었으며, 상중에는 남녀가 모두 순백으로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색을 숭상하고 평화를 사랑한 것이 한민족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 문헌에서 한민족을 군자로 취급하고 깨끗한 민족으로 인정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며, 함께 경쟁을 벌이던 이민족과의 협조와 조화를 통해 슬기로운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또한 한민족의 민요 속에는 투쟁적이고 살인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민요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분도 폭발하기보다는 웃고 마는 체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평화애호의 사상을 낳게 하였다. 노동요 중 모낼 때와 논매고 밭갈 때 농악과 함께 농부들이 부르던 노래들은 태평세월을 구가하는 노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정미 넘치는 평화사상이 주체화된 우리나라의 민요는 영미 민요의 무법자, 싸움, 파괴, 살인 등의 투쟁적인 주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권력의 통치는 폭력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일치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평화와 자유정치의 문화에서 흥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치이념

이 나온 것이다. 즉 재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금척의 현묘지도는 조화와 융화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사상의 실현으로서 소아를 버리고 대아정신에 살려는 「한」의 사유인 것이다.

태권도의 도복이나 수련의 상황은 평화정신을 상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태권도에 입문하면 흰 도복에 흰 띠로 시작하는데 흰색은 탄생 또는 시작 이전의 무(無)의 상태를 의미하며, 흰색은 바로 평화의 색채이기도 하다.

41) 유승국(1983). 태극기의 원리와 민족의 이상. 증산문화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따라서 태권도 도복의 흰 색은 평화를 상징하는 색채이며, 흰 띠 역시 평화를 상징하는 색채로써 출발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 수련에서 겨루기는 상대와의 투쟁이라는 근원적 목표는 있지만 겨루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예를 표하고, 상대의 기술에 대해 승복하는 마음가짐은 평화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한민족의 무예로써 양극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평화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2) 조화(調和) 정신

조화는 태권도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조화를 사랑하는 태권도의 정신적 특성은 도복과 기본동작에서 고루 발견된다. 먼저 도복은 원(○)·방(□)·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복의 바지에서 허리부분은 원(○)으로, 마루폭은 방(□)으로, 그리고 사폭은 각(△)으로 되어 있고, 저고리도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원(圓)·방(方)·각(角)은 각기 하늘(天)·땅(地)·사람(人)을 뜻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우주를 구성하는 삼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전통사상에서 하늘은 아버지에 비유되고, 땅은 어머니에, 그리고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겨난 자식으로 비유된다. 이 삼요소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과 우주 사이에 감통(感通)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태권도복이 갖추고 있는 원·방·각의 삼 요소는 곧 천·지·인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전통사상에서 중시해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방·각을 통해 구현되는 조화의 정신은 태권도의 기본동작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본동작에서 원(○)은 무게중심을 축으로 한 회전동작의 유연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은 서기자세에서 기저면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각(△)은 지르기와 발차기의 예리함과 타격력을 의미한다. 원래 한국의 전통사상에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고 여겨왔다. 마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태권도에서는 수련자의 무게중심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며 동작을 진행하게 된다. 회전을 통한 움직임의 매 순간마다 땅과 맞닿아 있는 발의 기저면은 안정적으로 바닥에 접해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자세에서 원(圓)(회전의 유연성)과 방(方)(기저면의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비로소 지르기와 발차기를 통한 타격도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원·방·각의 조화를 통한 기본동작은 그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타격 시에도 그 힘이 배가 되는 것이다.

조화정신은 태권도의 도복과 동작의 구석구석에 고루 스며들어있지만, 특히 단체로 품새 시범을 하는 데에서 그 진면목이 잘 드러난다. 수십명 때로는 수백명이 동시에 벌이는 단체시범에서는 절도 있는 동작과 우렁찬 기합소리를 통하여 다양한 수련자의 심신이 마치 한사람의 것인 양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단체시범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에는 단단한 결속력이 형성되며 심리적으로 일체감과 소속감이 강화된다. 확산되어가는 개인주의적 분위기로 인해 인간 사이에 배타적인 경쟁심리가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태권도의 단체수련을 통하여 배양되

는 조화와 단합의 정신은 공동체적 소속감을 가진 책임있는 인격주체의 양성을 위한 소중한 교육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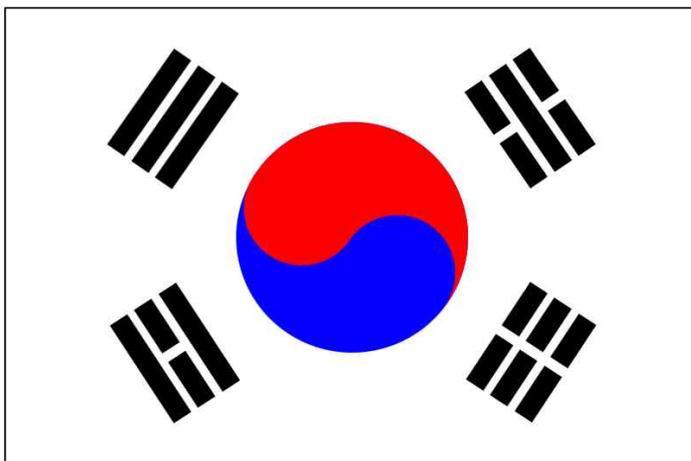
### (3) 합일(合一) 정신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수련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외국인 수련자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일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 수련자의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심지어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에 거행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일 이상의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도복의 흰색과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의미한다. 이는 꼭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이다. 우리나라 태극기의 한가운데의 원으로 된 태극문양에는 파랑색으로 된 음(陰)과 빨강색으로 된 양(陽)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하늘과 땅 나아가서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한다.

태극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의식은 우주의 운동변화에 동참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태극문양을 둘러싸고 있는 건(乾)·곤(坤)·리(離)·

감(坎)의 4괘는 각기 하늘·땅·해·달을 상징하며, 계절상으로는 봄·여름·가을·겨울을 의미하고, 윤리적 덕목으로는 인(仁)·의(義)·예(禮)·지(智)를 상징한다.<sup>42)</sup>



따라서 태극기에 대해 경례하는 일은 우주·자연에 대한 존중과 합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의·예·지를 구현한 인격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런 이유에서 태극기에 대한 경례는 비록 타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태권도 수련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권도 모국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예로써 필수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이다.

이는 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넘어 우주·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인·의·예·지를 체현한 인격자가 되기를 서원(誓願)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42) 유승국(1983). 앞의 책.

#### (4) 창조(創造) 정신

태권도는 완성의 무예이기 보다는 창조능력의 축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운동이다.

태권도 도복의 흰 색과 흰 띠는 무를 상징하는 색채이며, 이러한 흰 색은 만물의 근원을 뜻하며 태극사상에서 무극을 의미한다. 즉 무의 상황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질 창조의 가능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때의 가능태는 수련의 모방이나 창조의 의미를 지닌 완성의 현실태를 향한 태권도 수련의 상황을 촉진시키는 예비적 가능태인 것이다.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는 유급자의 경우에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흰 색 띠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완성의 단계를 의미하는 검은 띠를 획득하게 된다. 즉 일정한 수련의 단계를 거쳐 유단자로서 검은 띠를 두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흰 색의 도복이나 흰 띠는 무한한 창조의 여백을 가지고 있는 가능태이다.

더구나 태권도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동작이 어우러져 하나의 기술이 창조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동작의 조합이 태권도 품새이며, 태권도 품새는 곧 겨루기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는 동작의 틀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품새의 수련만으로 태권도 겨루기를 잘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한 품새의 수련과 함께 상대와의 수많은 겨루기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개발되어 겨루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즉 태권도는 스스로의 창조적 몸동작에서 실전적 기능을 익히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창조적 운동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태권도 수련자는 동작에 대한 만족감의 부재로 지속적인 연습을 하게 되며, 그러한 자기수련을 통해 최고의 만족스런 동작을 위해 수많은 수련과정을 겪게 된다. 이를 통해 창작능력이 향상되고 몸의 인지적 능력이 향상된다. 이것은 바로 인간계발의 창조정신을 함양시킨다.

또한 태권도의 창조정신은 태권도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방 이후



에 탄생된 태권도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어온 우리 민족의 맨손무술과 시대적 환경과 함께 다른 국가의 무술과의 조합을 통해 창조된 것이며, 오늘에 이르러 세계 정상에 우뚝 선 태권도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태권도의 창조정신은 도복과 상징, 그리고

수련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태권도의 커다란 가치인 것이다.

### (5) 약속(約束) 정신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수련자는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야 한다. 복장을 갖추는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띠를 단단하게 매는 일이다. 띠를 매는 일은 신체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복을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하지만 띠를 매는 일은 단순한 복장 갖추기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옷을 단단히 고정시키듯이 마음을 단단하게 여미는 일을 의미한다. 띠를 매는 일은 한자로 묶을 약(約)과 묶을 속(束)으로 표기한다. 현대어에서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원래는 띠로 곡식다발 등을 단단하게 묶는 일을 의미했으며,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언약을 지킨다는 뜻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태권도복을 입을 때 띠를 매는 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동심(不動心)의 상태로 단단하게 여미는 일을 의미한다. 부동심은 원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말한다. 부동심의 상태는 호연지기를 기쁨으로써 얻어지고, 호연지기는 의지(志)와 기운(氣)을 하나로 모았을 때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동심의 상태는 단순히 육체적 수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연지기라고 부르는 정신적 기운이 마음 안에 충실하게 간직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태권도 도복의 띠를 단단하게 매는 행위는 곧 호연지기를 가슴 안에 채우는 일을 의미하고, 이는 나아가서 적과의 대면에서 부동심의 자세로 확고한 준비태세를 취하는 일을 의미한다.

## 7. 맺음말

태권도 정신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신라의 화랑도정신, 조선의 선비정

신, 그리고 6·25 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예(禮)를 숭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역사와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고양된 상태, 또는 태권도 수련에 임하는 자세이거나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이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의 과정이나 자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세계의 각종 무술과 대화하고, 더 나아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련상황에서 획득되는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기본동작이나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래성을 위해 예견되는 궁극적인 태권도 정신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함께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은 실제적으로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 수련상황에서의 예절과 규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나, 그리고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이거나 상징적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태권도의 대표적 정신이 바로 극기정신, 예의정신, 평화정신, 조화정신이다.

태권도 정신은 각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태권도 정신을 교육적 덕목으로 세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면,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 나타나는 정신으로는 정직정신·극기정신·신동정신·중절정신·정의정신, 태권도 예절과 규칙에서 나타나는 정신으로는 애국정신·충효정신·예의정신·준법정신·평등정신,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 나타나는 정신으로는 평화정신·조화정신·합일정신·창조정신·약속정신을 들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출판부(1983). 현대사회의 가치관. 서울: 강원출판사.
- 고동영(1993). 한국상고무예사. 서울: 뿌리.
- 국기원(1987). 태권도 교본. 서울: 삼훈출판사.
- 권계순(1980). 우리 옷의 변천과 재봉. 서울: 수학사.
- 김 철(1986). 태권도 교육론. 원광대학교 출판국.
- 김 철(1997). 태권도의 구조적 탐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 김 철(1997).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교육적 차원). 태권도 사관 정립과 태권도정신 도출을 위한 세미나.
- 김광성·김경지(1988). 한국 태권도사. 서울: 경운출판사.
- 김동욱(1973). 한국복식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 김동춘(1987). 천부경과 단군신화. 서울: 가나출판사.
- 김상일(1988). 한밤문명론. 서울: 지식산업사. 11.
- 김열규(1992). 전통과 사상.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영선(1995).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대한태권도협회 계간지.
- 김영자(1987). 한국 복식미의 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한국연구총서 57.
- 김용범(1990). 태권도의 미적 고찰에 관한 연구. 미간행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욱(1990).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 김익수(1989). 한국사상과 현대사회. 서울: 율곡사상연구원.
- 김종문·장윤수(1997). 한국 전통 철학 사상. 서울: 소강.
- 김종서외 6인(1992). 전통 사상의 현대적 의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종식(1990). 태권도 무도정신에 관한 고찰. 미간행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효(1976). 한국사상산고. 서울: 일지사.
- 内藤武宣(1994). 空手道. 東京: 東京書店.
- 라동섭(1994). 태극 사상과 인류 평화. 서울: 공신출판사.
- 박일봉(1994). 周易. 서울: 육문사.
- 백승기(1986). 인간과 윤리. 서울: 학문사.
- 부민문화사(1994). 복식 디자인·관리(전공 기초과정). 서울: 부민문화사.
- 북애저 / 고동영역(1986). 규원사화(揆園史話). 서울: 뿌리.
- 서희건(1986).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서울: 고려원.
- 小川安郎(1981). 服飾變遷の原則. 東京: 文化出版局. 15 ~ 18.
- 심우성(1997). 신체의 미학. 서울: 현대미학사.
- 안용규(1995). 태권도의 지식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문.
- 안용규(1997). 「한」사상과 태권도. 미간행 아시아태권도연맹 세미나 발표문.

- 안용규(1997). 태권도 사관정립을 위한 제언. 태권도 사관정립과 태권도 정신도출을 위한 세미나 발표문.
- 안용규(1998). 데리다적 해체주의를 통한 플라톤 체육사상의 재고. 스포츠·무용철학회 논문집 6(2).
- 안용규(1998).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대한태권도협회 연구개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 안용규(1998). 플라톤의 체육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기획연구소 논문집.
- 안용규(2000). 태권도(역사·정신·철학). 서울: 21세기교육사.
- 안용규(2006). 태권도 탐구논리. 서울: 21세기교육사.
- 안용규·김창룡(1995). 태권도의 지식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 하계학술세미나.
- 엄주정(1996). 우리나라의 전통적 충효사상.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논문집. 3.
- 엄주정(1997). 현대사회와 인성. 서울: 문정사.
- 유선향(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사.
- 유승국(1983). 태극기의 원리와 민족의 이상. 증산문화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윤사순(1995).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 이 봉(1997). 태권도사의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경원대학교. 태권도사 교육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 이경명(1997). 태권도. 서울: 대원사.
- 이경명(2002). 태권도의 바른 이해. 서울: 상아기획.
- 이규석(1997). 동양 무술에 대한 고찰. 경원대학교. 태권도사 교육의 개선 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 이규석, 이승환, 한형조, 나영일, 안용규, 노영구, 안근아(2006). 태권도 역사 및 정신 연구. 태권도진흥재단 연구지원금에 의한 연구결과물.
- 이근철(1994). 한국 사상과 윤리. 서울: 보경문화사.
- 이민수 역(1980). 周易. 서울: 乙酉文化史.
- 이선근외(1979). 한국의 민족문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 이여성(1981). 朝鮮復飾考. 서울: 민속원.
- 이종우(1996). 태권도 정신. 국제심판 강습교재. 국기원. 9-13.
- 이진수(1987). 신라 화랑의 체육사상연구. 보경문화사.
- 이진수(1997). 무도적 차원에서 본 태권도. 태권도 사관 정립과 태권도 정신 도출을 위한 세미나.
- 이진수(1997). 일본 무도의 연구 - 柔道雨中問答을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2.
- 일 연(1512). 삼국유사 고조선편 덕정본.  
日本 書記 24卷. 皇極 天王 元年條.
- 임동규(1991). 무예사 연구. 서울: 학민사.

- 임동규(1991).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의 오류와 맹점. 사회평론.
- 임승국(1987). 한단고기(桓檀古記). 서울: 정신세계사.
- 전규태(1980). 한국신화와 원초의식. 서울: 이우출판사. 88.
- 丁茶山(1990). 與昇堂全書 제19권. 서울: 여강출판사.
- 정범모(1991). 미래의 인간과 교육. 교육 난국의 해부. 서울: 나남.
- 정세구(1990). 태권도 발전을 위한 제언. 권우 제7집. 서울대학교 태권도부 동문회.
- 정시화(1981).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보고서.
- 주진곤(1990). 태권도 철학 정립에 관한 고찰. 미간행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희(1971). 태권도 교서. 서울: 정연사.
- 최홍희(1983). 태권도 백과사전. 평양: 외국문 종합출판사.
- 하용득(1995).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 국민정신교육 교수지도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기연(1976). 교육의 역사철학적 기초. 서울: 실학사.
- 한승조(1983). 한국 정신사의 맥류. 서울: 국민윤리학회.
- 한승조(1995). 국기 태권도 교본. 태권도 정신 철학. 37~42. 국기원
- 한승조(1995). 국기 태권도 교본. 태권도 정신 철학. 서울: 국기원.
- Anglika Forster / 김창룡외 역(1989). 무술의 본질과 서양적 변용. 서울: 보경문화사.
- Bigelow, Marybelle(1970). *Fashion in History*. Minnesota, Burgess Pub. Co.
- Elliot Smith(1911). *Anthropology Enc. Brit.*.
- Elliot Smith(1918). *The Evolution of the Dragon*.

## 태권도 역사·정신 후속연구

---

2007년 8월 발 행

발 행 처 : 국 기 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페이지 : <http://research.kukkiwon.or.kr>

전 화 : 02) 553-5651

F A X : 02) 3469-0189

E - m a i l : [research@kukkiwon.or.kr](mailto:research@kukkiwon.or.kr)

---

이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국기원에 있으며, 국기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